

동국한방병원 지난 17일 개원



◇지난17일 재단법인 동국한방병원 개원식을 갖고 진료에 들어갔다.

연구-실습-진료에 새 전기 마련 방배동에 한방내과·소아과 등 6개 진료과 설치

「재단법인 동국한방병원」이 지난 17일 오전 11시 방배동방병원에서 李贊冠총장등 내외귀빈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진료에 들어갔다.

李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과 불교사상은 모두 동양사상에 근거를 둔 만큼, 이번 방배동병원개원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히고 「경주 한방병원은 개설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발전을 하지 못했으나 서울병원은 작은 규모로 출발했지만 병명을 확신한다고 인사를 마쳤다.

동국한방병원은 지난 87년 8월 한의과대학에서 부속한방병원의 서울분원을 희망함에 따라, 88년 9월 문화관광부의 정관계

정 승인을 받은 후, 89년 2월 공사허가를 받아 8월에 개공사공사를 준공했다. 이어 89년 8월 12일 서울시로부터 한방종합병원으로서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지난 17일 개원하게 됐다.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 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등이며, 개설 및 운영권자는 동국대학교사업진흥회로 본교와 의료진 지원 출연생 수련병원으로서 역할하게 된다.

규모는 임원실 10실(38평), 진료실 1237.34㎡(374.32평)이며 자상층 지하층으로 구성됐다.

원장은 현 국제중앙약학회

사 및 대한한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종형박사이며, 내과, 침구과, 중풍센터는 김문근, 김갑성, 안공림박사가 각각 담당하며 이명중박사는 물리요법을 맡았다.

한편 이날 개원식후 퇴장하는 총학 기획부장 김봉준(아간경영4)교를 중부서 대공3계영사 8명이 맞이하며 영장제시조차 거부한 채 강제연행했다.

공대위, 재단혁신 6개항 제시

현 이사 전원퇴진-재단혁신연합 구성 포함 총학생회 "입시 부정사건 관련자 더 있다"

「재단 혁신을 위한 투쟁 전 포석」이 지난 13일 오후 12시 학생 2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대위 주최로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4)교, 대학원학생회장 고성훈(사학·박사과정)교, 직원노조李建培위원장, 조교협의회 김인범(법학 89졸)사무처장, 공대위 김윤길(직원노조 부위원장)임시대변인등 각 자치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전포석에서 김영일(국문 89졸)공대위 실무간사는 사회를 진행하며 「진체의 발전의 전환기에 놓인 현공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단의 완전한 혁신을 통한 학원사회의 성취에 있으며 이러

한 공대위의 도약선상에 교수회가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대위는 6가지의 재단 혁신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부등과 부패의 온상인 현 이사진 전원은 즉각 퇴진할 것 △새로운 이사진은 전학이념 구현과 학교 재정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하여 구성할 것 △새로운 이사진 구성을 위해 중정선출을 이사장으로 추대할 것 △부이사 30만 명 등 중반 분기로 잃어버린 재단의 재산을 즉각 되찾을 것 △현재의 공대위에 교수회와 총동맹회가 동참하는 「재단 혁신 연합회(가칭)」를 구성할 것 △학생·직원·직원 등 모든

학교주체가 참여하는 범대학 모교운동을 제안할 것 등이다.

지난 12일 총학생회에서 「창출약간설을 위한 1만명인견전대회」를 마친 학생 2백여명이 지난해 1백36일간의 분관절거농성 이후 올해들어 처음으로 분관 2층 중정실)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학원자주를 위한 결사투쟁」으로 시작한 14일간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마친 뒤 가진 이날 전전대회에서 단식농성대장을 맡았던 한주영(불교3)안은 「학자주 선봉대를 구성, 이적 활성화되지 못한 단과대, 각과를 추동시켜 동양의 발전을 위한 투쟁에 공대위를 이루도록 단식농성을 건설적으로 마친다」는 해단식

장을 밝혔다.

이날 문과대 학자투위원장 김득연(국문2)교는 투쟁선언문 낭독을 통해 △총장은 정계위원회 구성하여 부정비리 관련자를 처벌할 것 △교수회는 출석총장선출제도를 즉각 철폐할 것 △부정비리 직무유기 학생처장, 총무처장은 즉각 사퇴할 것 △현 재단이사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문교부의 학원침탈 관선이사, 관선총장 결사반대한 다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한편 이날 대회를 마친 오후 3시 30분경 학생 2백여명은 분관 1, 2층의 총무처장실, 학생처장실 문을 열고 총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학원자주 원수를 위한 분관 입성식」이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 2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학자투 위원장 권원태(강병덕·미술3)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입성식에서 총학기획부장 김봉준(아간경영4)교는 「지난 분교부 감사에서 교수·직원들이 무려 1백16명이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날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4)교는 투쟁결론의 낭독을 통해 「반학자투 세력의 준동에 맞서 결연히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한편 집회를 마친 학생 2백여명은 스킨십을 짜고 분관 2층 학처장 회의실을 점거했다.

교수회비상총회에서 '총장선출' 논의 구체적 결론없이 이달말까지 의견 수렴키로

서울·경주 전체교수회 비상총회가 지난 14일 오후 2시 35분 「총장후보 인준규정에 관한 논의」를 주요안건으로 1백93명의 교수가 참가한 가운데 동국대(L301)에서 열렸다.

이날 전체교수회 金鎔眞(철학)의장은 비상총회 소집에 관해 「李贊冠총장이 빨리 총장후보자를 뽑으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총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총장후보인준규정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총학

회회장 김성규(사학4)교, 김윤길 직원노조부위원장, 김영일(국문 89졸)공대위 실무간사기차로 나와 「학내 여론 수렴을 통한 민주적 총장선출방식을 위한 민주적 총장선출방식을 위해 오늘 총회에서는 여타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 교수들은 梁文欽(철학)교수의 「민주적 절차를 통한 새로운 안이성립하러던 충분한 주체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필요하나, 오늘 회의에서 총장후보인준안을 마련하지 말자」라는 안과, 朴康植(경제학)교수의 「교수대의 원외에 대표권을 부여, 좀더 논의를 거치자」라는 안, 白奉欽(법학)교수의 「오는 10월말까지 교수대의원회에서 총본한 작정을 거쳐 이 제안을 결정하자」라는 안이 이날 참석교수들의 합의로 논의되고 아무 성과없이 회의를 마쳤다.

한편 이사진, 총장이 비어있는 현 사태와 관련 총단및 재단에 촉구문을 보내기로 지난 10일 교수대의원회에서 결정, 이날 구체적 촉구문 내용을 발표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승인했다.

그 내용은 △재단 이사회는 즉각적인 기능 정상화를 촉구한다 △재단의 재정 지원을 촉구한다 등 2가지 내용이다.

박물관 사진·자료전 국립중앙박물관서

본교 박물관(관장=文明大·미술학)에서는 「중국불교 문화유적학술조사 사진·자료전」을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사회교육관)에서 개최한다.

「현대법·비교법의 제문제」다뤄
경주서 국제학술대회 열어

본교 「비교법·법정책 연구소」가 주최한 「제1회 비교법·법정책 국제학술 세미나」가 법과대를 비롯 서독·일본교수및 학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오전 10시 경주캠퍼스 진흥관(E202)에서 열렸다.

「현대법과 비교법의 제문제」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본교 韓相範(법학)교수의 「경제개발과 독과점 및 소비자 보호」, 韓熙熙(법학)교수의 「세계의 가족법 개정 동향」,

Erwin Deutsch 서독피겐겐대교수의 「법체계·법비교·법정책의 제문제」등의 요지발표가 있었으며, 延基築(법학)교수의 사회로 요지발표자 및 孫福熙(법학)교수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 연구소는 「제7회 동국법학 학술발표회」를 지난 9일 오후 3시 진흥관에서 학생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崔昌東(부산대 법학과)교수등의 논문발표를 가졌다.

보리수

불교라는 공부, 진리탐구의 공부는 글자없이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글자만 가지고도 안된다.

지난 달末에 한 학술모임에 가서 外國의 불교학자라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발표도 듣고 그들의 의견도 들으며 더욱 그런 것을 느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 가신지 오래된 시기에 살며, 그의 남긴 말씀도 여러 세기에 걸쳐 여러 사람 손을 거쳐 여러사람 입을 거쳐, 마음을 거쳐 전해온 말씀을, 그것도 일부 부분적으로 들으며 그의 진리를 안다고 그리고 알았다고 떠든다.

내 이 글도 그런 것들 중의 하나가 될런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으로서의 위 한나디 말의 뜻을 새롭게 해석하고 나니 훨씬 더 지혜로워 진단 훌륭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었다.

行深般若波羅密多

반야경의 이 말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온 지금까지와는 달리 반야심경중의 이 구절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나는 서양학자들이나 그 뒤를 따른 일본학자들의 반야심경 풀이에서 이 구절

이 단순히 쉼표리란을 강조하는 것인양 강조되어 온 설명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가져 왔다. 그런데 나는 근래 元曉의 金剛三昧經論을 읽다가 여기서 말하는 바라밀다중의 여섯번째 解脫바라밀다의 실질을 곧 육바라밀다의 실질을 말하는 것이다.

李箕永

백상민속대전 준비 활발

경주캠퍼스 건립11주년기념 「진군백상대전」이 오늘(18일)부터 내일(19일)까지 양일간 교내일원에서 열린다.

「해방투쟁의 불꽃로 압제의 사슬을 끊고 자유통국의 기치 높이 진군하라. 민중승리의 시월이여」란 기치이래 열리는 이번 대동제는 18일 오전 9시 대운동장에서 개막고사를 필두로 야구·배구·탁구·서름등의 체육경기 결과와 백상가요제 등이 첫날에 열린다. 둘째날인 19일에는 오전 9시 발아구결승, 개막식 및 축하공연, 축구, 육상 결과와 마라톤, 해방대동놀이 등이 열리며 이어 시상 및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서울캠퍼스 백상민속대전이

「백상민속대전」 준비 활발

경주캠퍼스 건립11주년기념 「진군백상대전」이 오늘(18일)부터 내일(19일)까지 양일간 교내일원에서 열린다.

「해방투쟁의 불꽃로 압제의 사슬을 끊고 자유통국의 기치 높이 진군하라. 민중승리의 시월이여」란 기치이래 열리는 이번 대동제는 18일 오전 9시 대운동장에서 개막고사를 필두로 야구·배구·탁구·서름등의 체육경기 결과와 백상가요제 등이 첫날에 열린다. 둘째날인 19일에는 오전 9시 발아구결승, 개막식 및 축하공연, 축구, 육상 결과와 마라톤, 해방대동놀이 등이 열리며 이어 시상 및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서울캠퍼스 백상민속대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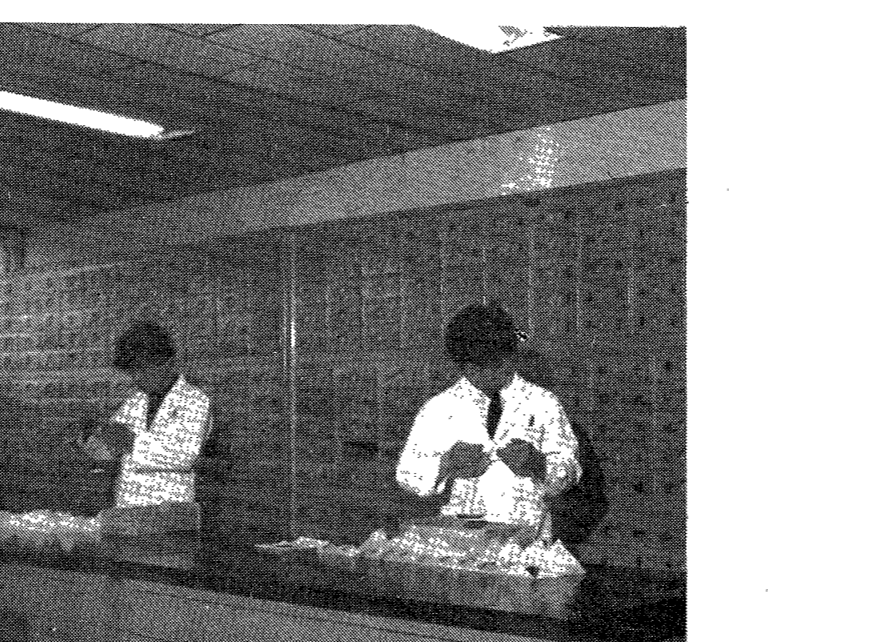
축개원

‘동국仁術’의 새시대가 열린다 재단법인 동국한방병원

민족의, 민족에 의한 민족을 위한 대학이 바로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한방병원이 마침내 서울에서 문을 열었다. 본교의 건학이념인 불교의 자비정신과 중생제도의 구체적 의지의 상징인 동국의료원—, 국민건강이 어느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서울 지역의 한방병원 개원은 동국의료원의 새 장을 여는 또 하나의 금자탑이 되고 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협력진료체계를 꾸준히 시도해온 동국仁術—, 이제 「東國仁術」은 동·서의학의 섭렵하면서 서울에서, 경주에서, 포항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 ### 진료과목
- 한방 내과
 - 한방 부인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안이비인후과
 - 한방 신경정신과
 - 침구과
- 개원일**
 1989년 10월 17일
■개원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267-8131~45
 ●경주캠퍼스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707 ☎(0561)2-0131~6

社說

모두 참여하는 총장선출案을 교수회는 공개·민주적으로 운영해야

총장선거를 앞두고 학교가 온통 부산하다. 지난 14일에는 「전체교수회 비상총회」가 열렸는데, 그 전날에는 교수회대표와 학생대표들이 만나 6시간이 넘는 마라톤회의를 하면서 총장선거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하지만 별 소득없이 하루를 끝낸 것은 아직도 학내 민주주의가 시시각각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총장선출은 교수들만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전의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학인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은 발전된 시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원칙이란 것은 단지 호사자들의 말장난인 듯한 인상을 준다. 이것은 막연한 실증적이지 않다. 이번 사건의 총장선거라는 것이 대학인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교수회의 토론은 공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비판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전대학인의 올바른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 발언에 제약될」을 이유로 학내언론사의 취재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언론자유까지 막아 버린 행위이다. 교수들만의 총장선거를 하지

않다면 무엇을 통해 대학인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의 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공개의 원칙은 여러 면에서 무시되고 있다. 교수회에서 여론수렴의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총장후보 선출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조차도 교수들만의 생각을 알아본 것일뿐 다른 주체들의 의견은 전혀 배제되고 있다. 교수회에서라도 의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진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총회가 비상총회니만큼 그 중대성이나 시급함은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도 결론난 것이라곤 「10월말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총장선출규정안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대의원회에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것 뿐이다. 일차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나 지금까지의 교수 대의원회의의 행적을 본다면 혁신적이라고도 민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총장선출에 관해 전대학인이 참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논의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전체 동국대에서 교수회로, 그리고 그에서도 대의원회로 축소되고 있다. 분명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교수회가 공개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족의 자존심 꺾여선 안된다 자주적 입장에서 대한압력 극복해야

미국무역대표부 쿨라 A. 힐스 대표가 내한, 10월9일부터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는 한국에 와서 짧은 시간안에 노태우대통령을 비롯하여 조순부총리, 한승수상무장관, 이우재재정장관, 김석중수상장관 등 각계의 지도자 2백50여명을 만났다. 항간에서는 이에 대하여 과공의를 한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그는 과연 우리나라에 무슨 목적을 위하여 왔으며, 무엇을 하고 돌아 갔는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한미무역협약이 실현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그는 한국에 와서 스티코기를 비롯 농산물의 수입개방, 미국기업의 한국투자 조기 인가, 스티강 및 섬유수출규제, 스티통신장 개방, 스티적소유권 보호 등 한미 통상협약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랜만에 한국에서 한국측의 대공적인 양보를 촉구하였다. 이와같은 미국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시가지적으로, 또한 우리의 현실을 너무 무시한 요구인 것이 문제가 되고 특히 스티코기를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국제무역의 비교우위론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8백만 농민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로서 현 단계에서는 고려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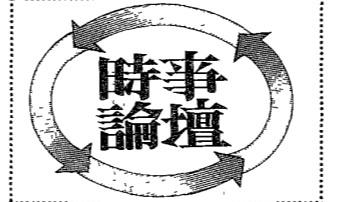
통신분야의 문제로 한국에서의 가장 열악한 부분으로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의 정보사업은 완전히 미국의 손아귀에 놓이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한반도에서의 패권다툼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측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도 시기적,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농촌을 비롯한 우리의 여러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후 자신있게 주장을 관철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40여년간 미국측이 자기들의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1백여년의 한미관계를 회고하여 볼때 △1905년의 미·일의 개조, △태프트비밀협정에 의한 일본의 한국강점, △2차대전 종전처리과정에서의 미·소의 한국분단 △6·25전쟁시 맥아더장군이 이룩한 통일을 막아머리를 해임함으로써 한국의 분단을 고착화시켜 한국인이 지금도 받고 있는

대중집회는 「대중」이란 말을 무색케 할만큼 고정된 소수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간혹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다해도 계속 열기가 아닌 단절된 투쟁만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를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번역하려 하기에 이러한 현실과 괴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즉 개별 과에서 얼마나 일상적 구조를 통해 많은 학우들을 진보적 이념에 도달할 통로를 보장하고 있

는가에 여부에서 개개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결의의 정도는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은 학생회 활동기반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다. 문제는 83년 성상인 자우동맹에서 이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대표자회의가 사수조차 되지 못하는 것, 소수만의 집회가 계속되는 것, 대중적 힘이 근거하지 못하지만 시기적 요구에서 먼저 결사한 사람들의 단식, 점거학생이 진행되는 것은 바로 학생회간부들이 스스로의 지위와 역할을 왜곡, 축소시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백색테러, 정권의 국민분열 정책에서 기인, 지금은 보수의 탈을 쓴 군사독재만 있을뿐"



朴 燦 鍾 (국회의원·무소속)

최근 들어 정가에서는 보수나 진보나 수구나 혁신이나의 일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사회전체적으로 좌·우이념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연일 언론에서는 보도하는 실정이다. 양심선언 장교,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테러등 이른바 우익 테러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지켜 보는 뜻있는 국민들은 실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 진정 우리 사회에는 보수와 진보, 좌익과 우익의 이념적 경계선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나는 단순한 테러사건이라는 계기적 측면만이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인 면을 살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과연 몇몇 테러사건의 앞에 우익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지를 냉정히 짚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보수·진보논쟁, 좌·우 이념대립의 실상과 허상은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립·모순·상충의 개념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논쟁은 이미 절분절개가 제한된 선계를 갖고 있기에, 우선 정에서 동일자원에서는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다. 아직도 이념에는 좌파도 보수이념,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체를 지켜 갈만한 자질이 있는 건전한 보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확신한다. 오히려 보수의 탈을 쓴 군사독재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이며, 자유시장경제

우리는 아직도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은 반민주적 군사독재체력에 반대하는 민주진영의 결집이 요구되는 때이다. 즉 진보나 보수나 중요한 때가 아니라 민주나 반민주가 중요한 때이며, 그러한 경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군사문화의 잔재를 말끔히 거두어야만 한다. 현 정권은 진보·보수논쟁으로 역량분배를 할 때가 아니라,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 5공잔해, 광주문제해결등을 선차적으로 이루어내

는 반독재 민주연합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왜 그러한 보수·진보논쟁이 끊이지 않고, 민주진영과 민주진영에 대한 테러가 빈발하는 것인가?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때문에 논쟁이 이루어지고 개인적 영욕때문에 테러가 발생하는가? 그것은 바로 군사정권의 부도덕함과 국민분열주의 정책에서 기인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구

다. 물론 진행되는 모든 사건과 시기에 있어 지도내용을 원활히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이며, 비판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회는 1만 학우 모두의 것이기에 이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총화시켜 내는 것으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건설의 관점을 유지할 때 학생회의 무기력증을 극복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힘없는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켜 힘있는 투쟁으로 나

학생회 무기력 극복은 대중의 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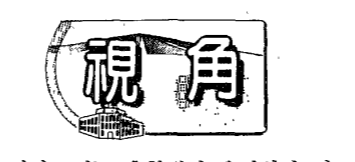
분단국 45년 가을 / 서늘해진 공안통치의 칼날은 역사가에 정당함을 지닌 민족민주세력에게 실질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83년 성상을 지키는 자우동맹에는 부정부패세력의 썩은 냄새가 곳곳에서 증동하고 있다. 자유를 사랑하고 정의에 투철하며 민주주의 선봉인 청년학생에게는 그 어느때보다 더욱 단결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청년학생의 유일한 조직적 무기인 학생회는 아직 무기력을 완전히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 대중집회는 「대중」이란 말을 무색케 할만큼 고정된 소수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간혹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다해도 계속 열기가 아닌 단절된 투쟁만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를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번역하려 하기에 이러한 현실과 괴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즉 개별 과에서 얼마나 일상적 구조를 통해 많은 학우들을 진보적 이념에 도달할 통로를 보장하고 있

는가에 여부에서 개개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결의의 정도는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은 학생회 활동기반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다. 문제는 83년 성상인 자우동맹에서 이를 구현하고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대표자회의가 사수조차 되지 못하는 것, 소수만의 집회가 계속되는 것, 대중적 힘이 근거하지 못하지만 시기적 요구에서 먼저 결사한 사람들의 단식, 점거학생이 진행되는 것은 바로 학생회간부들이 스스로의 지위와 역할을 왜곡, 축소시키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민주집중제 실현 위한 투쟁해야

물론 이러한 논의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역시 단대운영위의 지위와 역할의 보장 속에서 가능하다. 즉, 개별 과에서 얼마나 일상적 구조를 통해 많은 학우들을 진보적 이념에 도달할 통로를 보장하고 있

간부는 지도내용을 항상적으로 대중과 함께 공유하고 대중을 자주적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총학생회는 사중원에서의 지도자비율에 이유로, 단대와 과에서는 총학생회의 지도자비율에 이유로 상층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



한다. 이는 총학생회 운영위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시킬 때 가능하다. 즉 각 단대와 과의 실정·의식화 조직화 정도에 근거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 집행, 평가한다 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것이다.

민 이데올로기 선전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통한 광범한 테러고기를 유포시켜 왔다. 이러한 반역사적 허위이식으로 국민의 의식을 조작하고 독재권력의 유지를 이루어 왔던 것이다.

우리로 예의일 수는 없다.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건강한 면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갈등과 대결의 구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에도 우리는 그 실상을 알게 된다. 사실 보수·진보, 좌익·우익을 앞장 서서 외치고 구분하려 한 자들은 권력에 가깝게 있거나 기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은가?

김종갑 전 총무처장관, 양모교수, ××동지회 등... 하다 못해 백색테러-단언하지만 우익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행하는 대부분은 집단의 과거 망국적인 4·13호헌조치에 쌍수로써 환영했던 자들이 아닌가?

결국 감감하다가 한민족 터지는 백색테러의 테러사건은 그것을 저지른 자들의 심리적 측면을 면밀히 볼 때 자신의 위기감을 극복하려는 자책적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산되지 않고 있는 5공잔해, 광주문제해결등을 선차적으로 이루어내

는 반독재 민주연합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왜 그러한 보수·진보논쟁이 끊이지 않고, 민주진영과 민주진영에 대한 테러가 빈발하는 것인가?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때문에 논쟁이 이루어지고 개인적 영욕때문에 테러가 발생하는가? 그것은 바로 군사정권의 부도덕함과 국민분열주의 정책에서 기인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구

다. 물론 진행되는 모든 사건과 시기에 있어 지도내용을 원활히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이며, 비판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회는 1만 학우 모두의 것이기에 이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총화시켜 내는 것으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건설의 관점을 유지할 때 학생회의 무기력증을 극복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힘없는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켜 힘있는 투쟁으로 나

이것이 위해서는 특별한 그 무엇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생회의 기본원칙인 민주집중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즉 간부들의 생활력을 드높이는 것, 과단위에서의 논의를 최대한 활성화 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과정 과정에서 바로 학생회의 강화인 것과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투쟁방식은 단식이다.

김 종 찬 (공과대 국문과) 임지선



적성검사 안내

본 연구소에서는 4학년생들의 취업지도의 일환으로 적성검사를 비롯한 각종 심리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1. 검사종류: 적성검사, 지적능력검사, 인성검사
2. 검사대상: 4학년생
3. 검사장소: 심리검사 접수시 안내
4. 접수장소: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실 (교수회관 3층, 3-1)
5. 접수기간: 1989. 10. 18(수) ~ 1989. 10. 20(금)
6. 검사실시: 1989. 10. 24(화)

1989년 10월 일

학생 생활 연구 소장

여권무료 발급안내

(주)아주관광에서는 본교 지점여행사로 체결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권을 무료발급해드리고자 하오니 필요하신 분은 신청 바랍니다.

아 래

1. 신청기간: 1989년 10월 27일(금) 17시까지
2. 접수처: 후생복지과, (주)아주관광 해외여행부
3. 구비서류:
 - ▲여권용 사진 12매
 - ▲호적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1부(앞·뒤면)
 - ▲소양교육필증(남:반공연맹, 여:예지원)
 - ▲구 여권(소지자에 한함)
 - ▲막도장
 - ▲신원진술서(소정양식: 후생복지과에서 배부)
 - ▲인지대(W30,200)

4. 수수료: 없음
5. 여권유효기간: 3년복수
6. 자격: 본교 교·직원 및 그가족,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만 15세 이상 남자로 병역 미필자는 여권발급에 제한적 조항이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아주관광 해외여행부(753-5051)로 문의 바랍니다.

총 무 처 장

예비군 기본교육 소집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 및 동시행령 13조에 의거, 1989 예비군 기본교육(사격 및 정신교육)을 아래와 소집 합니다.

1. 교육대상: 전 예비군
2.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는자
 - *1989.1.1 이후 전역한 예비군(예비역 및 실역력 보충역)
 - *1989.1.1 이후 지역에서 동원훈련 및 16시간 이상 교육필자 (단, 전입이전 지역예비군 교육 무단 불참자는 제외)
 - *행정관리요원(사병): 만34세, 35세 및 미필보충역

교육일시	대학별교육장	집합시간	집합장소	과목	교육장소	복합 및 휴대품
1989. 10.24(화) 08:00-17:00	불교대, 예술대, 법과대, 사회과학대, 문과대, 경상대	10월24일 08:00시	구파발 3거리 156번 버스정류장	정신 교육 및 사격	노고산 사격장 (중로 중구 훈련장)	예비군복무대, 충성, 필기구, 학생증, 훈련 등지서 *단체착용 품목
1989. 10.25(수) 08:00-17:00	이과대, 이부대, 사범대	10월25일 08:00시	구파발 3거리 156번 버스정류장	정신 교육 및 사격	노고산 사격장 (중로 중구 훈련장)	예비군복무대, 충성, 필기구, 학생증, 훈련 등지서 *단체착용 품목
1989. 10.26(목) 08:00-17:00	농과대, 공과대, 5개 대학원, 교직원	10월26일 08:00시	구파발 3거리 156번 버스정류장	정신 교육 및 사격	노고산 사격장 (중로 중구 훈련장)	예비군복무대, 충성, 필기구, 학생증, 훈련 등지서 *단체착용 품목

4. 유념사항
 - *금년도 예비군 교육은 마지막회까지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념할 것
 - *각 개인은 자기 소속 대학별 교육일자 및 집합시간을 필히 준수하여 참가할 것 (구파발 156번 버스정류장에서 학교버스에 의해 사격장까지 승용)
 - *필히 사복을 착용하고 예비군복은 휴대하기 바람(예비군복은 교육장소에서만 착용)
 - *불참자는 고발되며 1.5배이상 보충교육을 받습니다.

1989년 10월 일 동국대학교 예비군연대장

학원잡추

학원잡추는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필수자료입니다.

— 네번째

I. 문제의 제기

불교가 이 땅에 유입된지 어언 1천6백여년이 되었으며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은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진수(進修)하는 대학임을 자량으로 하고 있다. 불교정신은 지혜의 증득과 자비의 실천에 의해서 자기완성을 함과 아울러 불국정토의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사상이라고 규명해 볼 때 우리 대학이 말아야 할 뜻은 실로



崔昌述

(불교대교수·불교철학)

증거대하다 하겠다. 불교의 교육지표는 마음의 올바른 수련을 통한 주체성의 자각과 여기에서 솟아나는 외롭고 현실적인 사회봉사의 자세 및 능력 개발을 지향하며 이러한 지향을 바탕으로 학습의 깊은 이론과 넓고 정교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자주의 이고 창조적인 인간을 형성하여 민족과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같은 교육의 목적이 입각하여 지혜의 증득, 자비의 실천, 불퇴전의 정진 등 세가지로 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흔히 하게 된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단편적이지만 고 단기간이지 않으며, 지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개인에게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이들이 사회에 나아가서 경제적인 풍요와 정신자본의 함양을 도모하게 될 때 대학의 역할은 그 기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쌍둥이도 세대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말을 상용어로 쓰고 있음을 곧잘 대하게 된다. 이 말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이 지식의 급격한 확대에서 오는 도전과 급속한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 준 도전, 그리고 학생육구와 학생문화의 변화에서 오는 도전을 감내하지 못한다 해서 나오는 불기행력의 단상일 것이

다. 사학은 각기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본교 역시 지혜의 증득, 자비의 실천, 불퇴전의 정진이라는 토대위에서 80여년의 법문을 갈려 온 것이다. 개교 1세기를 목하여 두어서 냉엄하게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였으며 오늘날 민주화의 열기속에서 옹호되게 보다는 한국의 민주화를 향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실천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만 본교의 건학이념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길일 것이며 이에 미흡하다면 막중한 책무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본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하고자

선을 찾아 보려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무슨 묘한 선을 도리를 밝혀 낼 수 없다. 출발에서 과학적인 분석적 사고로 접근했다는 것이 이미 잘못이 아닐까? 현이 알맞게 조여져 있을 때 정밀한 분석으로도 규명될 수 없는 묘한 선을 감지하도록 돕게 된다.

구원(轉輪)에 개화에 눈을 뜨고 사학 명진학교를 건립한 당시의 고승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멘트문화의 현대화라는 시각을 달리 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최소한도 범법학적 연구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학문과 연구의 위대한 공동 프로젝트이다. 연구 교수제도는 기존 교수에게는 해의 연수의 기회도 줄 수 있으며 신규연구 교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대학원생들의 꿈이요 사기를 앙양한다는 데 더욱 힘이 되리라 고 본다.

둘째는 불교의 다변화이다. 앞에서 본교의 교육목적이 자비의 실천이 있었음을 상기하게 된다. 이 자비의 실천을 위하여 단지 입으로만 자비, 자비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최소한도 동국학원은 현재와 같은 관습의 차원에서 탈각하여 중립대학을 지원적인 차원으로

을 유지할 수 있다. 세계는 특수성의 원리이다. 사학은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다. 이러한 원리가 물론 우리나라 사학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얼마나 실용적 있게 3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느냐에 대한 답은 그리 쉽게 나오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해결을 3원칙의 범주에서 풀어나가려는 실천의지가 확실할 때 동국발전의 폭은 훨씬 넓어질 것이며 건학이념의 구현은 보다 구체화 될 것이다. 비단 특정 학원의 재단 문제만이

◇글심는차례

1. 한국대학의 모순구조
2. 중립대학으로서 東大의 문제
3. 민족대학의 위상과 과제
4. 건학이념의 올바른 구현
5. 학문공동체를 지향하며

고 확산한다. 지금과 같이 음성적으로 공공연한 비밀이 관행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보직교수에 대한 평균수와 학생들의 의욕의 눈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기부금

송을 아끼지 않는다. 본교 역시 management가 아닌 리더십을 함양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이 본래 요구하고 있는 전문적인을 담야 사회적으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소위 인력과 덕망을 갖춘 이를 원한다.

물을 먹고 싶지않은 한마리의 말을 강변까지 끌고 가기는 쉬운 일이겠으나 물을 먹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전교직원 이 대학의 주체적인 力動性을 발휘하게 될 때 대학은 생동감이 넘칠 것이며 한리더의 리더십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교수회가 학원 민주화의 과정에서 파생된 산물이 아니고 동국발전의 주체로서 활성화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교수회의 활성화와 직원노조의 바른 시각인정 학생들의 요망사항을 주체적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해소시켜 나가리라고 본다. 부연 한다면 교수회 대의원은

사회변혁 향도하는 주도적 주체되어

교육의 지표로 삼고 있는 원칙과 실제와의 관계에서 아귀되었던 문제들을 보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불교의 현대화

우리 대학의 발전은 불교의 현대화라는 명제와는 별개로 볼 수 없다. 국가적으로는 민주화가, 중립적으로는 현대화라는 말이 익숙하게 되어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치체제에 관한 무척이나 미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유행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느 동화에 나오는 「허 잘린 참새」와 같이 표현의 자유가 상실되었고, 많은 부분에 성역이라는 한계를 그어 놓고 이 한계를 뛰어 넘는 이에게는 분별할 것 없이 제재를 가하였음에 대한 의의있는 대학인과 투철한 민주주의식이 함양된 국민들의 체제에 대한 anti-action의 결구였다고 본다.

한편 불교의 현대화에 대한 논의는 그치지 않고 줄기차게 대두되고 있다. 아마 1906년 5월8일 불교의 전신인 원종사에 명진학교를 설립할 당시 불교의 현대화는 이룩되었다고 본다. 우리는 자칫하면 불교의 현대화를 다문화, 고문화, 분석적인데 초점을 맞추어 보려는 시도는 무척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보아진다. 부처님은 포교함에 다수이다, 소수이다에 집착하지 않고 녹야원에서 처음 5명의 비구를 상

돌아켜 보면 일제치하의 사학은 탄압으로 말관되었다. 8.15후에는 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사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개방하는 정책을 지향하였다. 결국은 사학을 방임한 나머지 사학의 부실과 혼란을 가져오는 역작용도 파생되었다.

이후 1963년에는 사학의 정화를 위하여 사립학교법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80년대 제5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사회정책은 통제는 하되 재정지원을 고려하는 통제-지원정책으로 진전되었다. 88년에 출범한 제6공화국은 대학 자체의 학원 자율과 열기에 호응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역력하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불교 역시 사학의 일환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불교학 연구와 불교의 다변화 및 실천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하여 첫째 범법학적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본교내에는 그 규모에서 크고 작은 연구소가 산재해 있음을 알고 있다. 여러 연구소 가운데 본인은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불교 문화연구소의 현재 상태에서 속히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국대학교가 동국대학교 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건학이념에 입각한 범법학적 연구를 깊이 함에 있다고 확신한다. 지금까지 제정의 빈약한 지원에서 오는 연구의 낙후성을 극복하려고 부단

급진화 할 때만이 불교의 다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자비의 실천은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측담에 「부부부의 소금도 짠이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흡사 우리 학원에 비유되는 말인 듯한 인상을 본인은 느낀 적이 있다. 본 학원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국가 다음의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그리 실감있게 전 동국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은 무슨 연유에서 일까? 이런 재산을 유혹적절하게 활용하여 자원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싶다.

본교에서 한국 불교의 포교사를 양성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고 할 때 이 포교사는 어느 한 곳에 편입 없이 일체중생을 어여 불 수 있는 대자비심의 발현이 요청된다. 이것은 세상스러운 일이 아니다. 원래 불교는 이것이나 저것이나의 양면을 초월하는 뛰어난 교리이기 때문이다.

세계로 실천의 효율화이다. 자각이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는 지금과 같은 산업사회에서 병행해 나가기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자각은 우선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세계 어느 종교보다도 정적인 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불교는 자각을 추구하면서도 대승불교의 보살정신에 따라 실천행(實踐修行)을 체제로 내세우는 실천불교이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개미 한마리를 위하여 무량겁의 업보를 받는 것이 보살행이다.

효율은 능력이 비례하는 것이다. 행인이 가야 할 목적지를 잘 알고 갔을 때 목적지에 당도하는 시간이 나뉘는 소모는 축소될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때 오는 시간과 힘의 소모는 무척 큰 것임을 알 때 실천에 앞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문제는 재론을 요구하지 않는다.

III. 현실의 제문제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를 안고 있다. 유트피아가 갖는 말의 뜻은 No place라고 한다. 즉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사회대도 대학은 없다는 말이다. 사회는 사회대로 대학은 대학대로의 현안 문제들이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정체 3가지 원칙에서 풀어나가려고 할 때 불교의 현안 문제는 그리 어렵지만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3원칙 가운데 하나는 공공성이다. 소중성의 노력으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세미나가 있는데 독일의 에너위제단에서 지원금을 받아 불교와 불교, 불교와 경제등 인접

아니라고 본다. 공공성을 광범한 나머지 어떤 일적맥을 투자하면 영원히 그 재단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동이라 배 놓아라적으로 관여하는 사례들은 사학의 공공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나은 失行이라고 보아진다. 한국불교를 대변하고 있는 조계종단이 후회하고 있는 본 대학은 공공성을 숙지하며 더욱 발전하는 대학의 면모를 보여야 하리라고 본다. 도처에서 들려오는 본교의 낙후성에 대한 항성을 2만 동국인은, 8만 동문들은 잘 듣고 있을 것이다. 한 역사가 노지라 용견이라는 논리를援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동국은 비상을 위하여 온전성이 있으리라고 낙관해 본다. 상기하기조차 거북스러운 동국학원의 지난 8-31지상 보도는 결국 재원의 궁핍에서 나온 공저적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재단에서는 그 처방방법으로 여러가지 처방전을 내리리라고 본다. 그 한 예가 사학의 자주성을 口頭에서 머물게 말고 재단에서는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끝없는 재원을 확보에 영입시켜야 한다고 본다. 기존의 이사 정족수에서 파격적으로 탈피해 보자는 것이다. 실령 20명의 이사면 어떻고 30명의 이사면 어떤가 하는 점이다. 본인은 이사에서 원성을 들을 적마다 평소 심중에 간직했던 생각의 일단임을 밝혀둔다. 이렇게 하는 경우 불교대학을 줄경쟁력의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의 건축 내지 기자재의 설립이나 구입은 쉽게 해결 되리라고 생각된다.

특수성의 원칙은 여러면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국가가 사학을 후원해 줄 수 있는 힘이 力不足이라고 하면 사학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사학 나름대로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사학의 재산은 80%가 비수익 내지 저수익이다. 사학 재산의 빈약성은 결국 학교에 평균 10%정도의 재정적 지원밖에 못하고 학교 재정의 85% 이상을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츰차츰 물가에 뒤질래라 뛰어 오르는 등록금을 마련하기에 연연해야 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은 상상의 벽을 초월한다 하겠다.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需與에 의한 일학제도」를 양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운동과 같은 예체능계 특기 학생을 지원받기 대학에 수용하여서 기부금 입학이 양성화되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수혜의 길이 열릴 수 있다

특수성의 원칙은 여러면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국가가 사학을 후원해 줄 수 있는 힘이 力不足이라고 하면 사학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사학 나름대로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사학의 재산은 80%가 비수익 내지 저수익이다. 사학 재산의 빈약성은 결국 학교에 평균 10%정도의 재정적 지원밖에 못하고 학교 재정의 85% 이상을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츰차츰 물가에 뒤질래라 뛰어 오르는 등록금을 마련하기에 연연해야 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은 상상의 벽을 초월한다 하겠다.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需與에 의한 일학제도」를 양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운동과 같은 예체능계 특기 학생을 지원받기 대학에 수용하여서 기부금 입학이 양성화되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수혜의 길이 열릴 수 있다

특수성의 원칙은 여러면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국가가 사학을 후원해 줄 수 있는 힘이 力不足이라고 하면 사학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사학 나름대로의 운신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사학의 재산은 80%가 비수익 내지 저수익이다. 사학 재산의 빈약성은 결국 학교에 평균 10%정도의 재정적 지원밖에 못하고 학교 재정의 85% 이상을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츰차츰 물가에 뒤질래라 뛰어 오르는 등록금을 마련하기에 연연해야 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은 상상의 벽을 초월한다 하겠다.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需與에 의한 일학제도」를 양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운동과 같은 예체능계 특기 학생을 지원받기 대학에 수용하여서 기부금 입학이 양성화되어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수혜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도 없이 대학은 다양함속에서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은 다소 이론적인 면에 치우쳤다면 과감하게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교육을 받는데 그치지않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쳐서는 안되고 연마한 교육에 근거하여 새로운 Idea를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하며, 실생활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일의 능률 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재원확보 위해 글지재벌 이사회영입 고려할때

경주 캠퍼스에 대해 평소 소견을 털어 놓고자 한다. 불교라고 했을 때, 시내 대부분의 대학이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 캠퍼스만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면에서 볼 때 불교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동국학원에 독립체산체의 대학이 돌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경주 학생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본교와의 종속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앞으로 불교의 발전을 앞당기는 길은 동국인 모두가 도그마에서 하루속히 헤어나는 길이라고 본다. 나의 주장 내 생각이 옳을지라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타협이 없는 것이고 관용과 이해가 따르지 않게 된다. 남의 능력과 소견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하고 회색화 하려는 생각을 가진자가 있었다면 동국이 거듭나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구슬의 유류이었고라고 자인하면서 당국의 강물에 띄워 보내야 할 것이다.

회색은 의외의 도전을 받으면 여지없이 망가지고 만다. 동국인은 화석일 수 없으며 누구라도 화석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불교의 금강석이며 그러하기에 누구나 염원한다. 불교의 금강석만이 지혜의 體魄과 자비의 실천과 불퇴전의 정진을 감내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회색은 의외의 도전을 받으면 여지없이 망가지고 만다. 동국인은 화석일 수 없으며 누구라도 화석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불교의 금강석이며 그러하기에 누구나 염원한다. 불교의 금강석만이 지혜의 體魄과 자비의 실천과 불퇴전의 정진을 감내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불교학」과 인접한 제학문과의 상관성 공동연구 하길

대로 설법을 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 크고 높은 포교당에서 부처님의 교리를 설법하는 것이 불교의 진수를 받아들이는 양 생각하고 있는 불교도나 설법자가 지금 이 땅에 다수가 차지하고 있을 때 불교의 현대화에 역행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불교를 비롯 한 모든 종교는 과학적인 사료를 대입시켜 분석한다고 할 때 크나큰 오류를 낳게 된다. 만일 현대교육을 받았다는 한 과학도가 분석을 좋아한 나머지 가늠금의 선을 예 중미를 가지게 되어 그 선을의 출처를 밝혀려고 원(源)을 끌어 놓고

히 노력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재원 타령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시간들이다. 지금까지 특정학과와 단일체제로 운영해 오던 연구원의 폐쇄성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 불교학과 인접한 제학문과의 상관성을 보다 긴밀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공동연구해 나아가 때 불교학은 그 어느 때보다 참신함을 더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들면 경영관리 연구소장의 노력으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세미나가 있는데 독일의 에너위제단에서 지원금을 받아 불교와 불교, 불교와 경제등 인접

직장선택은 곧미래의선택— 시작부터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웃을 입을 때 첫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를 모두 잘 채울 수 있고, 첫단추 선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출발— 첫단추를 잘 끼우듯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① 안정된 기반은 있는가?
② 일에서 의욕과 사기를 북돋아 주는가?
③ 조직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가?
④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분위기인가?
⑥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는 큰 무대, 자아실현의 현장인가?

첨단기술과 인재로 세계 초일류기업을 지향하는 삼성은, 바로 이 6가지를 소중히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단추가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단·추

三星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 분석

I. 서론

어떤 사회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그 사회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사회가 지나고 있는 모습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과 그 모습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金鎮轍
(사회과학대교수·국채정치)

지난 수년간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는 한국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더욱 나아가서는 사회변혁을 위한 실천적 지식과 방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한국사회의 성격에 대해 많은 학문적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그러나 논의 되었던 이면들은 한국사회의 현실적 측면에 얼마나 그 적실성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어 다시 논쟁되어 왔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제국주의의 지배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제국주의 세력은 현재의 변화된 역사적 조건속에서도 자신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일 먼저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의 국가권력을 통해 관철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의 제국주의의 지배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주변부 자본주의의 발전이란 매판자본주의의 발전과 민족자립경제의 저지라는 양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한국자본주의의 경제부문이 발전해 온 과정과 그것이 유지되는 구조 즉 자본의 재생산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국자본주의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II.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형성과 동시에 발생하며, 자본주의의 전개와 더불어 동시적으로 제국주의도 병행하면서 전개된다. 즉 제국주의

나라 상호연관되어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 각지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동통제양식이 이루어져 핵심경제에는 자유로운 임금노동에 의한 생산이, 반주변부에서는 반노동(반자유노동)적 생산이 그리고 주변부에서는 노예 및 세반노동제하의 예능노동과 같은 강제노동(부자유노동)생산이 이루어져 상호보완적인 위계적 분업체제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들 자유·반자유·부자유라는 노동통제 양식의 차이가 국가간의 제국주의적 불평등 교환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적인 세계적 확산은 경제영역을 수탈하고 전유하는 핵

심부에서는 이 재생산 과정이 핵심경제에 의해 왜곡되고, 의도적으로 방해반응으로서 핵심경제가 체험한 발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주변부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전체속에 유기적으로 편입되면 주변부 자본주의의 존재자체를 규정하는 실체는 핵심부 자본주의의 발전논리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최초의 고유한 축적과정으로 보고있던 소위 「원시적 축적」이라는 개념은 자본주의의 생성기에만 나타나는 일회성의 일과적인 자본축적 과정이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일관적으로 수반되는 자본주의의 고유의 축적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축적·확적과정은 이중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자본가에 의한 노동의 잉여가치 수탈과 핵심부에

있다. 미국은 이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서 원조물자를 한국에 들어 왔다.

이때부터 조선의 대일 종속적인 구식민지 경제구조가 한국의 대미 종속적인 신식민지 경제구조로 재편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방후의 귀속재산의 처리와 미국의 원조를 물적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공업화가 시작되었으며, 그 일차적인 단계가 1950년대 후반의 수입대체 공업화였다. 그런데 귀속재산처리와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수혜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자본은 매판성과 관료성을 띠고 있었으므로 수입대체 공업화는 그 시초부터 대외 종속성을 갖게 되었다. 본래 수입대체 공업화 자체는 외국 상품의 의존을 감소시키고자 직접 경제를 실현하려는 내향적 공업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원조에 의해 확립된 소비시장형

국가의 과잉상품과 과잉자본을 비싼 가격으로 소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의 노동자 및 여타의 계급·계층을 수탈하여 그 잉여를 제국주의 국가에 넘겨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속에 한국의 대자본은 한국경제의 시장·군사적 기술들을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연결시키려는 주역으로 등장하며 그와 관련하여 다시 외자의 배정, 금융·세계상의 특혜를 통해 국가권력의 새로운 밀착관계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외향적 축적과정과 각종 특혜를 통해 자본의 집중을 강화한 매판적 독점자본과 통합적 기능이 급격히 강화된 국가권력이 그 외향적 축적을 유지시키기 위해 농촌을 비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재생산구조로 종속시킨다. 이것이 저임금 유지를 위한 구조로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의 대미 종속적 경제구조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관계 속에서 유지·존속되고 있는 정치권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정치권력의 발생에 있어서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주변부 자본주의의 국가성립의 유형을 따르고 있다. 즉 하부구조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해방후의 국가 형성에 있어서 한국자본주의는 하부구조가 그 도구로서의 상부구조를 형성 변질시키는 사회형태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관계 속에서 국가라는 상부구조가 먼저 창출되고 그 상부구조에 의해 하부구조가 재편 축조되는 형태로 한국자본주의의 사회구조가 성립된다. 그 하부구조의 구축과정으로서 농지개혁이나 귀속재산처분 및 원조물자 배분은 외향적 축적과정의 과정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종속적 국가와 외향적 축적은 종속적 대자본은 서서히 종속적 대자본(제법자본 또는 독점자본으로 불려진다)으로 전향되어 이 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한 미국의 독점자본의 국내적 매판자본으로 되어 국가와 미국자본과의 일종의 동맹적인 매판적 신식민지 자본주의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한국자본주의는 독점자본의 자율적 논리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권의 논리와 필요에 의해 운용되고 규정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 후 한국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주변부 자본주의로 편입되어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구조 속에서 신식민지적 자본주의로 재구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는 핵심경제가 주변부 경제를 수탈하는 효율적인 장치로서 제국주의적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갖고 있는 계급적 착취와 민족간에 전개되는 제국주의적 수탈이 병행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기본적 운동은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자본주의의 과정과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고 핵심부 자본주의국가들의 신식민지적 지배에 따라서 자본주의화가 촉진되고 있다. 그 결과로 한국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적 계급모순은 동시적으로 반제국주의적 투쟁에서 제기되는 민족모순과 일치되어 나타난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2중적 모순을 동시적으로 갖게는 것이 한국자본주의를 포함한 신식민지적 자본주의의 기본성격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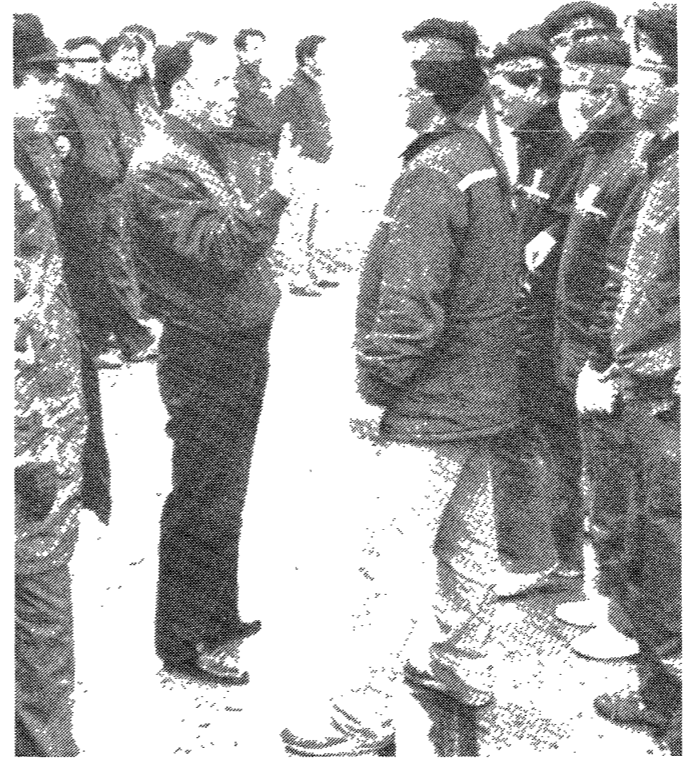
계급모순타파는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귀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유기적 분업과 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동시적 상호관련성은 분리될 수 없는 동일 메커니즘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의 어떤 특정 단계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보편적인 필요조건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은 극대이윤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을 위한 상품생산에 의해서 성립된 세계적 규모의 위계적 분업체제이다. 그 성립과정에서 자본주의는 핵심·반주변·주변이라는 지역적 3부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이 3개의 지역구조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심경제와 그 경제영역을 수탈당하는 주변부 경제를 분극화시키고 있다. 결국 핵심부의 경제발전과 주변부에서의 저발전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양면적 현상인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3부지역에는 이 노동통제양식에 조응하여 정치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역간의 상이한 정치형태는 국가간의 불평등 권력관계의 위계질서(hierarchy)를 형성시켰으며 이 국가간 위계구조가 국가간의 경제적 불평등 교환의 정치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간의 위계질서가 주변부지역의 노동통제 양식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로인해 주변부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이 국내수요 보다는 핵심부의 세계시장과의 교환에 목적을 두게 되고 그 결과 상품생산이 자체경제의 전체적인 순환과정에 통합되지 못하고 핵심경제에 종속되어 있게 된다. 주변부에서 생산된 경제영역이 주변부의 발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핵심부의 자본축적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구식민지적 신식민지적 사이에 식민지적 착취와 착취를 추구하려는 성향이 자본주의 본질이다. 따라서 핵심과 주변부



주변부, 자체 재생산구조 상실

본주의 국가간에는 수직적 분업체제가 형성되며 이를 위해 주변부 자본주의 사회에는 매판자본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종속적 발전의 구조가 형성된다. 이와 같이 주변부 자본주의의 생산관계는 핵심부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주변부 자본주의는 독자적인 자기발전 범위에 한 자기중심적인 재생산구조를 가질 수 없으며, 결국 자체적인 발전의 한계성을 갖게 된다.

III.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

1945년의 해방과 더불어 일제의 자본주의는 치단되었고, 이때부터 대일종속성의 한국의 식민지자본주의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

고 있는 지배계급의 소비재를 위한 공업화였다. 따라서 원료, 중간재, 자본재는 해외에서의 도입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무역의 의존과 외국자본의 의존을 더욱 가중시키는 대외 종속적 축적의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은 상품자본, 화폐자본의 국제화에 이어 생산자본의 국제화에 따른 한국의 대외 종속적 신식민지자본주의화 과정이며, 대국적 기업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지배·종속의 관계가 확립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자본운동의 결과였다.

그러나 수입대체 공업화는 대외의 의존에 의한 유효수요의 부족, 원료·자본재의 해외에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외환위기 등으로 위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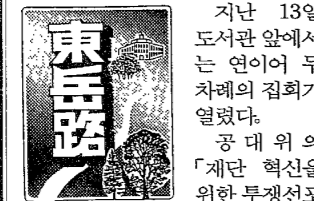
해서 「성장」을 꾀하고자 하는 주변부 자본가 및 그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권력의 이해의 결핵에서 생겨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모든 경제정책은 의제도임에 의존한 수출축적에 집중되었으며, 한국의 자본가는 새로운 국제분업체제에 그 자신을 통합시키고 제국주의자본의 종속적 동반자로 확립된다. 그러므로 수출주도형 공업화단계는 새로운 국제분업체제하에서 핵심부의 선진자본의 가치증식과 자본축적의 단계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국내의 대기업은 제국주의 국가내에서 그 사용기치를 이미 상실해 대체되어야 할 낡은 생산기계 및 부품을 비싼 가격으로 들여오므로써, 결과적으로 제국주의

「상장」을 꾀하고자 하는 주변부 자본가 및 그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권력의 이해의 결핵에서 생겨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모든 경제정책은 의제도임에 의존한 수출축적에 집중되었으며, 한국의 자본가는 새로운 국제분업체제에 그 자신을 통합시키고 제국주의자본의 종속적 동반자로 확립된다. 그러므로 수출주도형 공업화단계는 새로운 국제분업체제하에서 핵심부의 선진자본의 가치증식과 자본축적의 단계임을 의미한다.

IV. 결론

이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 후 한국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주변부 자본주의로 편입되어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구조 속에서 신식민지적 자본주의로 재구성되었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는 핵심경제가 주변부 경제를 수탈하는 효율적인 장치로서 제국주의적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갖고 있는 계급적 착취와 민족간에 전개되는 제국주의적 수탈이 병행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기본적 운동은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자본주의의 과정과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고 핵심부 자본주의국가들의 신식민지적 지배에 따라서 자본주의화가 촉진되고 있다. 그 결과로 한국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적 계급모순은 동시적으로 반제국주의적 투쟁에서 제기되는 민족모순과 일치되어 나타난다. 자본주의의 이러한 2중적 모순을 동시적으로 갖게는 것이 한국자본주의를 포함한 신식민지적 자본주의의 기본성격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13일 도서관 앞에서 열린 민학련 발족식은 연이어 두 차례의 집회가 열렸다.

공대 위의 「제단」 혁신을 위한 투쟁선포

식, 이 끝나자, 잔디밭과 벤치 등에서 이를 지켜보던 민주주의 학생연맹(이하 민학련) 학생들이 「전노협 선군가」를 부르며 속속 모여 들었다. 곧이어 본교 민학련 발족식이 진행되었고 조준근교는 대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대위 집회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하나 둘씩 발족식 장소 주위로 모이다니, 어떤 학생은 호기심 어린 눈

민학련 발족

투쟁방향이 결여되어 있다. 그 문 제제기를 한 뒤 「민주총장 추대 위」를 각 단대별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발족식이 있기 3일전부터 대 자료를 통해 정치적 입장 발표와 현 학자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오던 민학련은 이날 발족식을 통해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민학련이 현 총학과 서충현 전 대협에 제기하는 문제는 「학생조 직노선」과 「투쟁방 향」 「정체」이다. 현 학생회의 미약한 정치투쟁을 상시적인 선진화운동으로 정지 투쟁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집회에 참석했던 총학생회 지지자들이 「학생조 직노선」과 「정체」에 대해 「학생운동에 있어서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제기는 운영위원회등의 통로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다. 「현 총학의 미약한 정치투쟁은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선진화운동만의 투쟁체 건설은 자칫 대중과 유리될 수도 있다」고 하며 부정적 견해를 표출했다. <이진형記者>

전국대학 신문기자 연합회

동대신문 45년 10월 14일

광고지면을 올바르게 혁신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이 제 단위신문사의 차원을 넘어 전대기련산하 1백4개 신문사 공동의 목표임을 선언한다.

올해 초부터 자대기련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광고지사회복운동」의 결과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광고가 거의 자취를 감췄을 뿐 아니라 외국어대와 서강대의 경우 대하신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는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을 맺어 기획광고 게재, 독자참여란의 신설·정제화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대하신문 광고지면을 약화하여 궁극적으로 독자에게 돌아갈 이윤을 갈취하는 과립치한 악덕대행사가 여전히 추방되지 않은채 우리의 대하신문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렇기에 지난 8월 이후로 동국대, 고려대, 부산대 등이 펼치고 있는 「우남」 「에드젠」등 악덕광고 대행사와의 싸움은 의롭고 정당하며, 정당한 이 광고투쟁은 단지 3개 신문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전대기련 전체의 투쟁과제임을 천명하면서 고투하는 3개대 동지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동참의 뜻을 표한다.

대하신문기자는 독자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여 광고지면을 편집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상업적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추방하는 투쟁은 우리의 요구이면 서 동시에 독자의 뜻인 것이다. 대하신문의 목적은 올바른 민족자주언론의 건설일뿐 이윤자세를 존립의 근거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투쟁하는 목적은 기존의 이윤제일주의 악덕기업체들로부터 돈 몇푼 더 받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대하신문의 발전을 기업의 목표로 세우고 탄생한 대행사를 이제 우리 스스로의 단결된 힘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있다. 그야말로 우리의 목적인 민족자주언론이 건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대학신문기자들은 이러한 광고사업의 전국적 확산과 확고한 승리를 위해 이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과도 단호히 투쟁할것임을 결의하며, 이 길이 곧 민주자주언론의 대장정에 모두 함께 어깨걸고 나서는 험난한 발걸음임을 확신한다.

동국대, 고려대, 부산대의 광고지면을 '동국대, 고려대, 부산대의 광고지면을' 전대기련산하 1백4개 신문사 공동의 목표임을 선언한다.

동국대, 고려대, 부산대의 광고지면을 전대기련산하 1백4개 신문사 공동의 목표임을 선언한다

정부는 미국의 대변인인가...

추곡수매의 현자음을 찾아



못한 때문에 책정된 양이지만 89년 실제 생산량은 오히려 작년 수준보다 더 증가해 정부에서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농민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뻔한 사실이다.

한편 수매는 균형 식산과에서 통일부는 농협에서 하게 되는데 작년의 경우는 11월1일부터 수매에 들어가 40kg 한가마당 3만2천20원씩 거래가 이루어졌었다.



영암군내 쌀정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영석씨는 추곡수매에 대해 "80년대 들어 수매가가 이태동안 같았으며 그후 5%정도 인상돼 오다 작년에야 대가 실시된다면 영암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화될것이다"면서 "저출은 도시와 같은 수준인데 물가상승률에 비해

1. 전남 영암군의 실태
「정부는 농민생존을 위해 추곡전량수매를 실시하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매율을 20% 이상 인상하라」 「우리 농민이 버는 수입개방 반대한다. 등 의 의견이 전남 영암군 일대에 울려 퍼졌다. 물론 이러한 합성들은 정부의 추곡수매정책이 논외로 하고는 지금 비단 영암군에서만 나오는 요구가 아니라

10일경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에서는 20일을 전후해 국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키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해마다 나타나 는 문제점으로 누차 지적된 바가 있었듯이 영암군내의 추곡수매를 담당하는 식산과에서는 지역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추수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7일 현재까지 정부에서 하달된 수매비점검이라는 미명아래 이장이나 농촌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추수를 적시에 모두 마치고 벼가 이상 없도록 건조에 주력하라」는 등의 이야기만 남긴 채 농민들의 실질적인 요청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군내의 주민들은 물론 군청내의 일부 직원들까지 어느 정도 가책을 느끼고 있지만 현 행정체제가 극복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영암군의 올 수매 예상량은 총 41만가마로 작년의 48만가마 수매에 비해 수매량이 현저하게 저하됐다. 이러한 예시상의 결정은 정부측에서 작년과 87년산 쌀의 재고를 처리하기



추곡수매를 위한 농민들의 시위 모습. 추곡수매가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 농산물개방이 농민 목줄라

지 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실행 되지 않을 경우 해마다 밀리는 부채를 갚을 길이 막연해 저기 때문에 농민은 더욱 절실한 것이다.

II. 정부의 방침 간과할 것인가

정부의 89식량증식 계획에서 전남의 생산 목표는 9백93만8천석으로 쌀이 6백16만1천석, 기타가 3백77만7천석으로 하달됐다. 이에따라 영암군의 생산량과 수매량도 결정이 됐으나 실 생산량이 증가해 결정량만 수매가 실시된다면 영암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화될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 20일경 정부에서는 수매가인 상물을 결정하게 되겠지만 경제기획원에서 제안한 10%이내를 원칙으로 제시할 것이 확실시 돼 카탈릭농민회, 전국농민연합회에서 요구하는 41%인상, 평민당의 20%이상 인상, 민주당의 16%이상 인상등에는 한참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년 수매기간에 이 중곡기계의 실사가 야기한 양곡관리기금적자를 핑계로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해왔다. 쌀재고증가의 근원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은 채 소비촉진책만을 강조하고 양곡적자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종곡기계의 양곡관리금은 연평균 7백57억정도 뿐이며, 쌀만의 이중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는 것이 자명해졌다. 다시 말해 외국으로부터 쌀의 수입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정부에서 내년부터 쌀가격의 제정판별을 허용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표까지는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이제까지 정부에서 실시해온 쌀값의 인상억제, 물가상승, 미 농산물의 수입개방 등은 제별과 권력집단의 일부에게만 보다 살기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었을 뿐, 한국농민을 필두로 한 하층민의 생존은 구조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었을뿐이다. 이런 현실은 의제의 지배와 현정권의 비자주적 비민주적 작태에서 기인한다.

III. 농민의 생존권 보장은 어디에...

지난달 30일 연휴를 전후해 전남지역의 전남대, 조선대 등의 학생들도 영암군, 나주군 및 지난 여름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장성, 장흥 등으로 추계농항을 다녀왔다. 그러나 학생들과의 연대투쟁이 결코 농민자신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즉 농민은 스스로 정부와 모순된 정책과, 미국을 필두로한 자본주의 세력의 침탈과 맞서 싸워야 한다. 더구나 92년부터 적용될 미국의 농산물 추가수입자유화계획에 대해 다량의 곡물이 추가로 들어 올 경우 우리 농민은 더욱 암담한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다.

농민들은 현재 존립하는 노동조합의 관계를 확대, 강화해 정부측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하며, 정부를 비롯한 정당에서도 작게는 추곡수매가인상, 농가부채절감 등에서부터 출발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미 제국세력의 단원까지 차츰 정책을 수정해야 함이 시급하다.

(서창훈 記)

대중적 조건의 투쟁을...

—공안통치에 맞서는 전술에 대하여



최성웅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연구원)

I

89년에 들어서면서 노정권의 파쇼적 본질이 노골화되기 시작하였다. 각종 집회에 대한 인권침해, 이념서적의 출판에 대한 탄압,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 등 정권의 강압적 폭력적 동원이 현저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3월, 「중간평가 연기선언」 이후 소외계층의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면서 노정권의 공안통치가 수개월 지속되기 시작하였다. 노정권의 공안통치는 단순한 폭력의 동원을 넘어서 정치이념적 공세의 강화에 의한 일종의 심리전을 수반하는 단합전술이었다. 이는 「문목사 평양방문」 시의 「임수경 씨 평양출진환가」 등 일련의 사건과 맞물리면서 그효과가 극대화되었고 관세우익단체의 발호와 관세언론의 악의적 보도를 유효한 수단으로하여 극렬한 대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정권의 강압통치는 전민련의 주요간부 소속, 전대협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한계대선문사에 대한 압수 수색, 등에서부터 저하된 노조, 현대중공업 노조, 대우조선 노조 등 노조에 대한 파괴공작, 노점상 철거, 농민집회 탄압, 김대중중세 일진 등등에 이르기까지 민주세력 전반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89년에 들어와 시국판단 이 상을 구축시켰다.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의 주요한 책임은 「전민련」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II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노정권의 공안통치에 맞서 전적으로 투기력 했던 것만은 아니다. 이철규열사 사인규명투쟁을 비롯하여 몇몇 사안에서는 공세적 위치에 서기도 하였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대응이 공안통치에 예기를 받거나 정치정세를 획기적으로 전전시킬 정도로 성과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대중투쟁에 대한 평가는 지나치게 폐배주의적 관점에서 서는 것이고 보다 정확한 표현은 대중투쟁의 부족함이 될 것이다. 어쨌거나 공안통치에 대응한 민권세력의 정치적 전술이 미흡한 것은 사실인 만큼 그

인식의 등요가 민권세력 내부에 계속 존재하면서 유효하고 정확한 정치적 대응을 방해하고 있다.

둘째로 전술배합의 미숙함을 들 수 있다. 이는 투쟁의 성격과 대중적 조건에 대한 올바른 분석에 기초하지 못한 것에서 근원적으로 비롯되는 것이 적절할 역량배치의 어려움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문목사와 임수경열사 방북을 남북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장구단일과 방북에 선도적으로 타격을 가한 것이며 북한주민과 해외동포의 통일열망을 크게 고양시킨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한국내부에서는 광범한 국민의 호응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이는 한국내 대다수 국민들의 일차적 관심은 의연히 민주적 체질의 정권이 오는 것이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정권교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극복할 정도의 결백성과 결의에 차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정권의 파쇼적 폭압은 반공, 반북이메를로기를 명분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통일운동은 민주화운동과 결합될때만이 성과있게 진행될 수 있으며 한국의 민주화는 자주와 통일의 방향 속에서 완결하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통일운동은 중심에 두느냐 마느냐를 투쟁방향의 이진으로 설정하는 식의 기계적사고는 당면의 정치전술은 유효적절히 구사하는 데 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III

체적과 당근은 예로부터 지배자의 통치수단으로 존재해오던 것이다. 그 어느것도 민중운동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노정권의 유화조치와 공안통치 어느 것도 한국의 민중운동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며 반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민주운동의 성장을 오로지 민중의 의식화와 조직화를 역량 기본 조건으로하여 메시가 올바른 정치적 방향을 제시할 지도역량의 결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편으로 민족민주운동과 자주적 대중운동에 크게 타격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 노정권의 파쇼적 본질을 스스로 드러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객관상황을 파고되거나 편협하게 이해한다. 그 전행적 모습이 전민련의 상반기 투쟁과정에서 나타났다. 전민련은 지난2월 대중적 조건을 고려치 않은 「노획전투」를 전면에 내걸었다가 3월이후 공안통치가 계속되자 범민주세력의 연대투쟁을 조직화하는것은 둘째치고 스스로 무기력함에 빠져 당면투쟁조차 책임있게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불과 몇개월의 상황을 두고 공세기와 수세기라는 커다란 잼대의 극단을 오고가는 주권적

민중세력 총연대로 주도권 찾아야

자신의 생활인식의 편향 극복해야

원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원인으로는 첫째, 민권세력 내부의 상황인식에 대한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편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편향은 객관상황을 파고되거나 편협하게 이해한다. 그 전행적 모습이 전민련의 상반기 투쟁과정에서 나타났다. 전민련은 지난2월 대중적 조건을 고려치 않은 「노획전투」를 전면에 내걸었다가 3월이후 공안통치가 계속되자 범민주세력의 연대투쟁을 조직화하는것은 둘째치고 스스로 무기력함에 빠져 당면투쟁조차 책임있게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불과 몇개월의 상황을 두고 공세기와 수세기라는 커다란 잼대의 극단을 오고가는 주권적

한자리수 인상안 생산비에도 못미쳐 농가부채 탕감위한 근본적대안 절실

농촌 수입은 한층더 낮아져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허다하며, 실정 형편이 더 나아 정부 지원으로 이양기, 콤바인, 트랙터 등으로 잘난 기계영농을 해도 대부분이 투자한 금액마저도 제대로 거둘 수 없다. 고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농민들이 일반미의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출하 시키지 않았는데 오히려 통일벼보다 가격이 밀려나 올 해는 일반미마저 대량 수매를 요구하게 됐다. 더구나 일반미는 통일벼보다 제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남을 비롯한 남서해안지방은 벼멸구등의 방충해가 다른 지역보다 극심해 절대 다수의 농가가 통일벼를 재배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일관하던 농민들도 추곡전량수매, 20%이상의 수매가 인상등이 전혀 관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전남 강진에서는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대규모 집회를 갖기까

해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벼가 이삭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고개를 완강이나 숙이고 있는 지 금까지도 정부, 민정당, 평민당을 비롯한 야당이 모두 결의를 같이 못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수매가, 수매량의 조정에 해결이 어렵지만 쌀재고누적과 각지역마다 나타나는 생산과잉까지 겹쳐 난항에 직면한 것이다. 즉 쌀값의 지속적인 인상을 어렵수 없이 요구하는 농민과 물가안정을 빌미로 한 정부의 쌀값인상 억제책은 쌀의 자급자족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대두됐다.

80년대의 추곡수매가인상률은 88년의 16%까지를 포함, 62.7%로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 29.8%로 월등히 우수한 게 나타나지만 수직상의 허실로 도시-농촌간의 지속적인 농민들이 유입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변질된것은 물론 계속적인 증가일로를 달리 쌀의 지급률이 95%까지 달했음에도 미 자본주의계급세력이 잉여농산물이 반입되고나니 우리

곡가계 결손액은 고작 2백89억 원이다. 또한 양곡관리기금적자는 생산자인 농민을 보호하려다 생긴 손해액이 아니라 오히려 도의 소비자를 위한 정책적 강하게 띄고 있다.

올해 약 4천만석의 벼가 1백25만3천ha에서 생산된 수매가 한자리수 인상은 농민들에게 더 큰 곤욕이된다. 정부가 올해 수매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헤매는 근본적인 책임은 사실 정부자신이 이제까지 잘못된 정책을 실시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쌀의 파단한 생산과 수매인상률억제정책도 문제가 지만 미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을 그대로 받아드린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실수인 것이다.

5공화국이후 급격히 미국의 농산물이 유입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변질된것은 물론 계속적인 증가일로를 달리 쌀의 지급률이 95%까지 달했음에도 미 자본주의계급세력이 잉여농산물이 반입되고나니 우리

大卒社員募集

浦項製鐵은 다음世代之幸福과 다음世紀之繁榮을 위한企業입니다.

포항제철은—
양질의 철을 값싸게 대량생산하여 국익을 증대시키고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하여 복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제철보국의 신념을 가진 기업입니다.

포항제철은—
세계 제3위의 대형 제철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최근 7년간 단일 제철소로서는 세계 1위의 경이적인 생산실적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는 투철한 기업윤리와 선구자적 개척정신, 창의력으로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며, 제철보국의 신념과 공인으로서의 소명의식으로 묵묵히 길을 걸은 2만여 포철임직원들의 창조적 노력이 이룩한 빛나는 결실인 것입니다.

募集分野 및 應試資格		人員	應試資格
理工系	機械工學, 電氣工學, 電子工學, 金屬工學, 化學工學, 電子計算學, 産業工學	350名	• 1962年 1月 1日 以後出生한 者 • 正規 4年制大學 募集 政當學科 및 關聯學科 專攻者로 '90年 2月 學士學位 取得豫定者 또는 既 取得者(語學專攻者는 人文系 應試可能) • 各 分野 公히 兵役畢 또는 免除者로서 海外旅行에 缺格事由가 없는자
人文系	經營學, 經濟學, 貿易學, 法學, 行政學	150名	
三、1次錄用(筆記試驗)日時 및 場所			
日時: 1989年 11月 5日(日) 午前 9時		場所: 弘益大學校(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소재)	
四、提出書類			
• 入社志願書(當社 所定樣式).....1部			
五、志願書交付 및 接受處			
交付處	接受方法	接受處	接受期間
• 各大學 學生處 또는 就業輔導室 • 서울사무소: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금계빌딩(서울시청영)	郵便接受	千 790-785 慶北 浦項市 槐東洞1番地 浦項綜合製鐵(株) 人力管理部 人力課	'89. 10. 5(木) ~ 10. 25(木)
• 浦項: 本社 • 光陽: 光陽製鐵所			'89. 11. 2(木) 까지 個別郵送 받
六、其他事項			
• 書類提出은 郵便으로 하되 마감일 到着분에 한함. • 國家報勳對象者로서 證明書 提出者는 關係法令에 依據優待함. • 疑問事項은 接受處로 問議바람(電話: 0562-70-0693~0696)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제4회 동대문학상 시·평론부문 본상

평론 부문

시 부문

I
 本月는 「변모의 시인」인가. 이 명제의 확언으로 부터 대부분의 本月論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가지로 암시하는 바가 많다. 이명제는 評者들에 의해서만 아니라, 本月 자신에 의해서도 힘이 인정된다. 논란의 싸움 역시 포함하고 있을 것같은 위의 단정적이면서도 위험한 명제가 비판의 시련을 거치기에는 너무 자명하였고 그만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주입되었던 「本月-自然」의 동식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상고하면 그것은 뚜렷해진다. 지금과 서 누구도 그를 自然派詩人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연과 화가 되는 입장으로서의 「인생파적 시인」으로 우리 앞에 존재한다.

만일 本月이 변모의 시인인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本月詩의 스타일과 그 詩의 오묘함을 살펴봄으로써 누구라도 수월하게 그 論據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추지하시피 本月의 첫 시집 「山桃花」의 스타일은 극도의 압축적이며 언어적 외재의 가락이 소 개는 自然 혹은 山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특성은 그러나 두번째 시집인 「蘭·其他」와 세번째 시집인 「購」에서 당장 심한 변모를 겪는다. 초기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언어 선택에 관한 과민한 편벽이 상당히 선명해진 것은 물론 詩의 대상도 육친의 죽음, 日常의 가장생활, 소시민적 자기인식 등으로 확산된다. 네

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장식이 아니라 그 장식 안에 의연하게 존재하는 감추어진 부분이다. 이 감추어진 부분, 삶에 관한 반응 양식을 결정하는 중추기관에 대한 조망없이 한 詩人の 변모를 말하는 것은 그 논리전개의 편리함에 불과하고, 결국

은 本月詩의 매우 중요한 속성이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암시해 준다. 우리가 만약 「싸늘함과 뜨거움」의 배면에 숨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양자를 두루 통제하는 어떤 힘의 핵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 本月詩의 진모는 의외로 쉽게 드러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詩가

水平線이 한결같이 따라온다. 아아 이 숙명을 숙명같은 꿈은 마리아의 눈동자를 눈물처럼 신앙을 애절하게 풍성한 음악으로 나는 어쩔 수 없다.
 -(빈집) 「砂磧」
 (빈집)으로 표상된 세계에서, 혹은 그 (<중심에서>라는 시에서 시인은 긍정의 꽃 한 송이를 꺾기도 하며 시를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류의 시를 쓸때 목월은 가장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행복만 (사물의 세계)

수평선이 한결같이 따라온다. 아아 이 숙명을 숙명같은 꿈은 마리아의 눈동자를 눈물처럼 신앙을 애절하게 풍성한 음악으로 나는 어쩔 수 없다.
 -(빈집) 「砂磧」
 (빈집)으로 표상된 세계에서, 혹은 그 (<중심에서>라는 시에서 시인은 긍정의 꽃 한 송이를 꺾기도 하며 시를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류의 시를 쓸때 목월은 가장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행복만 (사물의 세계)

어머니, 풀들도 길을 떠나느니오 마을 앞 길옆에 나란히 줄지어 서서 어디로 갈고 있을가오
 풀들이 울려퍼진 강을 건너서도 늦은 가을이면 한 발 앞에 씨앗을 던져놓고 모가지들 거두어 돌아간 뒤 언 땅 속을 걸어 다음해 봄 그 자리에 싹 틔우고 또 한 발 앞에 씨앗을 던져 다음해엔 그 자리에 싹 틔우고, 이렇게 한 해에 한 발이라도 내딛으며 강을 건너고 산을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줄이 길어갈수록 어머니, 제 그리움은 더욱 사무칩니다

바람도 알지 못하고 큰 눈발도 보지 못하는 이들의 조용한 숨소리, 말소리. 거칠고 고단한 자리를 떠나 이 험악한 대일이 찾아오는 곳은 어디일가오
 어머니, 이 연하고 작은 것들이 곳곳히 나아가는 모습이 눈시리게 아름다운 때문일가오 풀들, 사슬같은 길 끝엔 재가 찾아올때는 그리운 세계가 꼭 있을 것만 같군요 그래요, 미처지도 숨어버리지도 못한 제 몸이 지금 꿈틀꿈틀 꿈이 일고 있네요
 어머니, 고품 서러운 풀 길 위를 또 박도박 꽃잎처럼 걷고 싶습니다 쓰러지며 일어선 꽃잎이 되어 가서 열렬하게 만나고 싶은 것 있습니다

어머니, 고품 서러운 풀 길 위를 또 박도박 꽃잎처럼 걷고 싶습니다 쓰러지며 일어선 꽃잎이 되어 가서 열렬하게 만나고 싶은 것 있습니다

서수현 <전남대 국문과>

친구들, 형제들! 학생회실 구석에 앉아 시를 쓰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대들이 고단한 밤 일찍이 평안으로 나아갈 때, 힘 있게 웃음 한탄 치어주지 못했습니다. 시라는 무기를 만드라는 핑계로 늘상 물러앉아 있었습니. 제가 간혹 그대들 앞에서 열렬하게 시를 읽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출세와 명망을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형제들! 지금 세상에 활자로 박혀난 제 맥없는 감상의 울음은 마구 깨지고 있습니다. 그대들 노랫소리와 빛나는 사랑 앞에서 부러지고 터지고 있습니다. 아, 날이후 후회하고 새삼합니다. 맹세합니다. 본론한 노래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대들 속에 제 몸머져 끌고 들어가 타오를 수 있는 노래를.

친구들, 형제들! 학생회실 구석에 앉아 시를 쓰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대들이 고단한 밤 일찍이 평안으로 나아갈 때, 힘 있게 웃음 한탄 치어주지 못했습니다. 시라는 무기를 만드라는 핑계로 늘상 물러앉아 있었습니. 제가 간혹 그대들 앞에서 열렬하게 시를 읽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출세와 명망을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형제들! 지금 세상에 활자로 박혀난 제 맥없는 감상의 울음은 마구 깨지고 있습니다. 그대들 노랫소리와 빛나는 사랑 앞에서 부러지고 터지고 있습니다. 아, 날이후 후회하고 새삼합니다. 맹세합니다. 본론한 노래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대들 속에 제 몸머져 끌고 들어가 타오를 수 있는 노래를.

미련한 시 뱀이쥘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늘상 삶의 진실추는 「비바리」 형제들,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서수현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친구들, 형제들! 학생회실 구석에 앉아 시를 쓰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대들이 고단한 밤 일찍이 평안으로 나아갈 때, 힘 있게 웃음 한탄 치어주지 못했습니다. 시라는 무기를 만드라는 핑계로 늘상 물러앉아 있었습니. 제가 간혹 그대들 앞에서 열렬하게 시를 읽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출세와 명망을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형제들! 지금 세상에 활자로 박혀난 제 맥없는 감상의 울음은 마구 깨지고 있습니다. 그대들 노랫소리와 빛나는 사랑 앞에서 부러지고 터지고 있습니다. 아, 날이후 후회하고 새삼합니다. 맹세합니다. 본론한 노래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대들 속에 제 몸머져 끌고 들어가 타오를 수 있는 노래를.

친구들, 형제들! 학생회실 구석에 앉아 시를 쓰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대들이 고단한 밤 일찍이 평안으로 나아갈 때, 힘 있게 웃음 한탄 치어주지 못했습니다. 시라는 무기를 만드라는 핑계로 늘상 물러앉아 있었습니. 제가 간혹 그대들 앞에서 열렬하게 시를 읽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출세와 명망을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형제들! 지금 세상에 활자로 박혀난 제 맥없는 감상의 울음은 마구 깨지고 있습니다. 그대들 노랫소리와 빛나는 사랑 앞에서 부러지고 터지고 있습니다. 아, 날이후 후회하고 새삼합니다. 맹세합니다. 본론한 노래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대들 속에 제 몸머져 끌고 들어가 타오를 수 있는 노래를.

친구들, 형제들! 학생회실 구석에 앉아 시를 쓰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대들이 고단한 밤 일찍이 평안으로 나아갈 때, 힘 있게 웃음 한탄 치어주지 못했습니다. 시라는 무기를 만드라는 핑계로 늘상 물러앉아 있었습니. 제가 간혹 그대들 앞에서 열렬하게 시를 읽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출세와 명망을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형제들! 지금 세상에 활자로 박혀난 제 맥없는 감상의 울음은 마구 깨지고 있습니다. 그대들 노랫소리와 빛나는 사랑 앞에서 부러지고 터지고 있습니다. 아, 날이후 후회하고 새삼합니다. 맹세합니다. 본론한 노래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대들 속에 제 몸머져 끌고 들어가 타오를 수 있는 노래를.

친구들, 형제들! 학생회실 구석에 앉아 시를 쓰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대들이 고단한 밤 일찍이 평안으로 나아갈 때, 힘 있게 웃음 한탄 치어주지 못했습니다. 시라는 무기를 만드라는 핑계로 늘상 물러앉아 있었습니. 제가 간혹 그대들 앞에서 열렬하게 시를 읽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출세와 명망을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형제들! 지금 세상에 활자로 박혀난 제 맥없는 감상의 울음은 마구 깨지고 있습니다. 그대들 노랫소리와 빛나는 사랑 앞에서 부러지고 터지고 있습니다. 아, 날이후 후회하고 새삼합니다. 맹세합니다. 본론한 노래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대들 속에 제 몸머져 끌고 들어가 타오를 수 있는 노래를.

친구들, 형제들! 학생회실 구석에 앉아 시를 쓰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대들이 고단한 밤 일찍이 평안으로 나아갈 때, 힘 있게 웃음 한탄 치어주지 못했습니다. 시라는 무기를 만드라는 핑계로 늘상 물러앉아 있었습니. 제가 간혹 그대들 앞에서 열렬하게 시를 읽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출세와 명망을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형제들! 지금 세상에 활자로 박혀난 제 맥없는 감상의 울음은 마구 깨지고 있습니다. 그대들 노랫소리와 빛나는 사랑 앞에서 부러지고 터지고 있습니다. 아, 날이후 후회하고 새삼합니다. 맹세합니다. 본론한 노래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대들 속에 제 몸머져 끌고 들어가 타오를 수 있는 노래를.

친구들, 형제들! 학생회실 구석에 앉아 시를 쓰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대들이 고단한 밤 일찍이 평안으로 나아갈 때, 힘 있게 웃음 한탄 치어주지 못했습니다. 시라는 무기를 만드라는 핑계로 늘상 물러앉아 있었습니. 제가 간혹 그대들 앞에서 열렬하게 시를 읽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출세와 명망을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형제들! 지금 세상에 활자로 박혀난 제 맥없는 감상의 울음은 마구 깨지고 있습니다. 그대들 노랫소리와 빛나는 사랑 앞에서 부러지고 터지고 있습니다. 아, 날이후 후회하고 새삼합니다. 맹세합니다. 본론한 노래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대들 속에 제 몸머져 끌고 들어가 타오를 수 있는 노래를.

친구들, 형제들! 학생회실 구석에 앉아 시를 쓰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대들이 고단한 밤 일찍이 평안으로 나아갈 때, 힘 있게 웃음 한탄 치어주지 못했습니다. 시라는 무기를 만드라는 핑계로 늘상 물러앉아 있었습니. 제가 간혹 그대들 앞에서 열렬하게 시를 읽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출세와 명망을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형제들! 지금 세상에 활자로 박혀난 제 맥없는 감상의 울음은 마구 깨지고 있습니다. 그대들 노랫소리와 빛나는 사랑 앞에서 부러지고 터지고 있습니다. 아, 날이후 후회하고 새삼합니다. 맹세합니다. 본론한 노래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대들 속에 제 몸머져 끌고 들어가 타오를 수 있는 노래를.

그는 자연과 대립 되는 입장에서 「인생파적 시인」으로 우리 앞에 존재한다.

본제 시집인 「慶尙道の 가랑잎」에서 다시 그의 고향인 경상도의 언어가 깃들었다. 물론 첫시집인 「山桃花」의 언어담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한 인간의 삶에서의 계층은 일 마든지 다양해져 수 있으며, 그 생활방식 또한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으로 인간이 변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

는 없다. 「山桃花」와 「慶尙道の 가랑잎」이 각각 그 兩極에 놓여 지게 될 것이다. 「山桃花」로 대표 되는 초기 詩는 날카로운 감각과 고도의 기교가 구사된 싸늘함의 세계이다.
 한편 「慶尙道の 가랑잎」은 가락 자체가 詩로 化하는 호곡의 세계, 즉 뜨거움의 세계이다. 이 엄청난 이차성-싸늘함과 뜨거움이라는

당선소감

江 위로 바람이 날린다. 절망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도 비명을 내지르지 않는다.
 문득 오늘의 토막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었다. 가을비를 맞은 탓인지 밤새껏 내 마음도 앓을 것만 같다. 오늘의 페이지엔 남들할 수 없는 험기중험...
 늘 비가 뿌려지는 나의 가슴 안 물감을 뿌리고 싶다. 그것은 적당히 용해되고 또는 그렇게 됨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에길 존재하게 할 테지.
 흘러도 흘러가지 않는 물이 되어 그 밑바닥 전복혀 채여 있는 뜨거움과 치열한 아픔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싶다. ...시지프스
 그대의 精神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읽고 있었다. 그의 평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이의 이름조차도...
 그대도 새벽마다 일어나 나를 불어라. 그리고 레베의 江에서 헤어 나오라.
 끝으로 저의 출판을 뵈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친구들, 형제들! 학생회실 구석에 앉아 시를 쓰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대들이 고단한 밤 일찍이 평안으로 나아갈 때, 힘 있게 웃음 한탄 치어주지 못했습니다. 시라는 무기를 만드라는 핑계로 늘상 물러앉아 있었습니. 제가 간혹 그대들 앞에서 열렬하게 시를 읽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출세와 명망을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형제들! 지금 세상에 활자로 박혀난 제 맥없는 감상의 울음은 마구 깨지고 있습니다. 그대들 노랫소리와 빛나는 사랑 앞에서 부러지고 터지고 있습니다. 아, 날이후 후회하고 새삼합니다. 맹세합니다. 본론한 노래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대들 속에 제 몸머져 끌고 들어가 타오를 수 있는 노래를.

손재중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제4회 동대문학상 입상자 발표

東國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주도해 갈 文才를 발굴하기 위해 공모했던 전국대학생 대상 「제4회 東大文學賞」入賞者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入賞者

(詩部)
 ▲本賞...서수현 (전남대 국문과 3년) 「질경이」
 ▲佳作...김정수 (경희대 국문과 3년) 「잡의 꿈」

(小説部)
 ▲本賞...정석환 (본교 국어교육과 3년) 「H」
 ▲佳作...김소영 (효성여대 국문과 4년) 「외출」

(評論部)
 ▲本賞...손재중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3년) 「朴本月論」
 ▲佳作...박원석 (본교 국어교육과 3년) 「李相和의 「나의 침실」 연구」

◇시상일시
 1989년 10월 20일(금) 오후1시30분 본교 총장실
 ※入賞者는 오는 10월20일 오후1시까지 來社바람

1989년 10월 18일
동대신문사

싸늘함과 뜨거움으로 무력감 표현

박 목 월 論

「길로 서늘하고 안으로 熱해야 한다.」고 주장한 芝蔴의 말이 매우 시사적이다. 本月는 芝蔴에 의해서 문단에 등장하며 그의 영혼을 상당히 깊이 받고 있었다. 本月 스스로가 「오허려 나 자신은 (絶對的 修辭를 충분히 정리하고 나면 本月의 詩가 바로 韓國詩)라는 말에 집착하였던 것」이라고 말해 놓은 것을 보더라도 本月이 自註詩의 典範으로 지음의 詩論에 어느정도 경도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本月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 뜨거움을 점차로 드러내게 되었으며 그것이 (廣濶한...)의 호 폭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閏四月)에서 문설주에 기댄 눈먼 처녀로 나타난 바 있는 세계이다. 인생은 이렇듯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자연에 대한 목월의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언급한 시에 대한 선형적 태도, 관념적인 자연 등도 모두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목월의 자연은 거처서 살아야 할 자연이 아니라 자족적인 거리가 있는 자연이다. 이때 인간의 고통이 거세된 즉자적 자연이 당면히 시적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며, 그것이 극도의 기교연마를 감수하여 「싸늘함」의 세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자연관과 인생관은 결국 인간 무력감을 지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감각과 결합할 경우 인정주의가 나타난다.

그것은 (閏四月)에서 문설주에 기댄 눈먼 처녀로 나타난 바 있는 세계이다. 인생은 이렇듯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자연에 대한 목월의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언급한 시에 대한 선형적 태도, 관념적인 자연 등도 모두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목월의 자연은 거처서 살아야 할 자연이 아니라 자족적인 거리가 있는 자연이다. 이때 인간의 고통이 거세된 즉자적 자연이 당면히 시적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며, 그것이 극도의 기교연마를 감수하여 「싸늘함」의 세계가 나타난다. 이러한 자연관과 인생관은 결국 인간 무력감을 지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감각과 결합할 경우 인정주의가 나타난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실존에 대한 인식조차도 적극적인 절망이나 피비린내 나는 허무감을 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감상을 촉발하여 거기에 흥건히 잠기고 싶다는 의식을 일으킨다. 「백옥새」라는 시에서 「백옥새는 온다는 표현은 허무로 말하기보다는 그 허무가 미적적으로 승화하는 공간을 노린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절망 자체보다는 그 절망이 일으키는 감상이 혹은 미적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지 모르겠지만 이 시에는 현실의 모든 것이 말끔히 제거된 오로지 관념속에 있는 자연만이 나타날 뿐이다. 황동규가 지적했듯이 「그」는 詩의 중앙에서 그려진 자연이다.

동양화적 자연이 한국적 혹은 향토적 자연과 혼동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목월의 자연이 동양화적이라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양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적 엘리트들의 상층적 세계 안에서 자리잡은 순수한 관념의 소산이고 청산오대 변모되는 극도의 현실탈소가 행해지는 곳이다.

濟州에서는 어디로 가나 등뒤에 수평선이 걸린다. 황홀한 이 때를 잡고 때로는 토주를 마시고 때로는 시를 읊고 그리고 해질녘에는 靑長峯에 돌리고 먹구름나무 나직한 돌담전에서 친구를 찾는다. 그럴때마다 나의 등뒤에는

「질경이」와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한 긍정」으로 시적 마무리를 짓고 있다.

이승 아닌 서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로 바람에 날려서

이승 아닌 서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로 바람에 날려서

가려 뽑고 나서

중의 과정을 거친다는 매우 의미있는 과정을 통해 논리의 체계화, 과학화의 성과를 거둘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은 知識에 속박되거나 지나친 普遍化의 추구로 인해 生命感도 個性도 상실한, 하나하나한 이야기로 되어버리거나, 마침내는 研究를 위한 研究의 수준에 떨어지거나 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이번엔 본賞으로 뽑은 손재중의 「朴本月論」은 무엇보다도 詩와 삶을 해석해내는 批評의 感性의 卓越함에 주목되었다.
 예리하고 독을 파고들지 않고 문제를 크게 설정하고, 감정이 시를 떠서하게 만들기도 한다. 시를 쓰는 제논은 타월한 것 같는데 너무 재주를 부리려는 자세는 오히려 흥미되고 있다. 작품들이 모두 도통이라는 인상을 주는 점도 이 시를을 정려상에 머무르게한 이유의 하나이다.

의 선택에 있어, 작품분석의 방식이 있어 아직 좀더 연마의 시간을 기다려야겠다.

洪起三 (문학평론가·본교문과대교수)

詩

「질경이」와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한 긍정」은 삶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다. 역사성과 세계성의 균형도 시를 볼 보기에 만든다. 또 개성있는 골도 마음에 든다. 당선작으로 뽑은 「질경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도 흥미를 데워 주고 있다. 「울음」의 6편(김정수)은 먼저 우리말을 다루는 솜씨가 빼어나다. 우리 것에 대한 깊은 애정이 시를 따스하게 만들기도 한다. 시를 쓰는 제논은 타월한 것 같는데 너무 재주를 부리려는 자세는 오히려 흥미되고 있다. 작품들이 모두 도통이라는 인상을 주는 점도 이 시를을 정려상에 머무르게한 이유의 하나이다.

의 선택에 있어, 작품분석의 방식이 있어 아직 좀더 연마의 시간을 기다려야겠다.

洪起三 (문학평론가·본교문과대교수)

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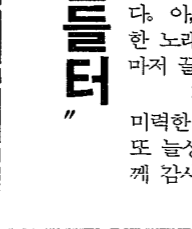
「질경이」와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한 긍정」은 삶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다. 역사성과 세계성의 균형도 시를 볼 보기에 만든다. 또 개성있는 골도 마음에 든다. 당선작으로 뽑은 「질경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도 흥미를 데워 주고 있다. 「울음」의 6편(김정수)은 먼저 우리말을 다루는 솜씨가 빼어나다. 우리 것에 대한 깊은 애정이 시를 따스하게 만들기도 한다. 시를 쓰는 제논은 타월한 것 같는데 너무 재주를 부리려는 자세는 오히려 흥미되고 있다. 작품들이 모두 도통이라는 인상을 주는 점도 이 시를을 정려상에 머무르게한 이유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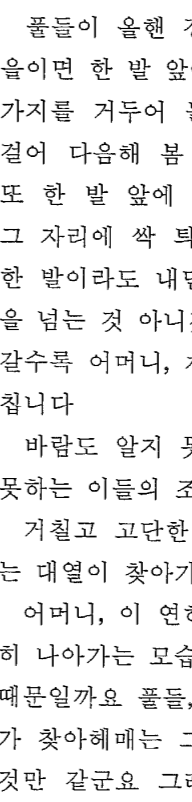
질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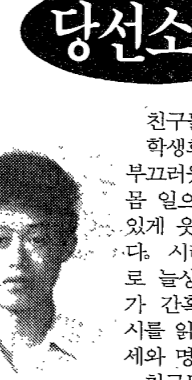
당선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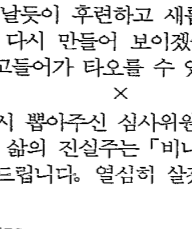
가려 뽑고 나서



가려 뽑고 나서



가려 뽑고 나서



가려 뽑고 나서

손재중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이 다섯편의 작품을 대하고 느낀 것은 그동안 이들이 열심히 소설을 써왔다는 점이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구성이나 문장면에서 그리고 주제의 설정 등 기술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중 「H」와 「외출」이 두 작품은 다른 서편에 비해 그러한 결점이 적었다.

당선작 「H」는 예기의 틀이 견고하여 전말의 흐름이 뚜렷했으며 평범한 주제이지만 그런대로 무리 없이 녹여져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 문장도 꽤나 세련되어 있는 편이다.

가작 「외출」은 화해로 맺어진 결말처리에 호감이 갔고 또 차분하고 때때로운 문장도 적지 않은 장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두 학생은 물론 나머지 다른 학생들도 모조리 소설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않아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 빌며 지면 관계상 간략히 원주소감을 마친다.

金文洙 (소설가)
 韓龍煥 (소설가·본교사법대교수)

I. 서언

Brahmanism과 초기불교(Early Buddhism)의 비교고찰은 불교학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불교는 아차와 인도철학의 집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새롭고 정열이 된 신선한 꽃은, 그 꽃 한송이 만으로서도 아름답고, 그 꽃의 생명이기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 꽃을 피게하기까지의 토양과 물과 잎사귀등의 보호와 물거품이 있었기에 그것은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꽃의 아름다움은 생명력을 더하기 위해서 정열의 토양과 뿌리와 잎새를 잘 살필때 배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밑거름이 된 인도철학을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불교 초기의 인도의사상인 Brahmanism(특히, Upanisad)과 초기불교의 비교고찰은 한층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두 사상적 체계에서 윤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비교고찰하려고 한다. 이를 고찰하는데 있어, 연구자료의 범위는 Upanisad와 아함의 중심이 되었음을 비교해 살펴본다. 윤회론의 비교에 앞서 본래적인 비교가 선행되고, 이어서 해탈에 대한 연구가 따르는 것이 순서이겠으나 지면의 한계로 덧붙이지 못함이 서운하다. 구체적이고 종합적 논의는 후에 덧붙이기로 하고 기본적인 골격으로 이번 원고를 풀이하기로 하였다.

II. 윤회(업)론의 비교

1) Upanisad의 유아윤회설

(1) 윤회의 일반

인간은 몸과 마음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음을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렇듯 두 부분의 결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다. 이 결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것은 윤회론의 핵심이다. 인간은 죽음을 몸 버리지만, 몸은 버린 뒤에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태어난다. 이 태어난다는 것은 윤회론의 핵심이다. 이 태어난다는 것은 윤회론의 핵심이다.

윤회는 Sanskrit어로 Sam-sara인데, 이는 Sam-Sro라는 동사로부터 나왔다. Sam-sro는 to flow together with, to wander or roam through를 뜻한다. 또 die wandering aus einem Leben in ein anderes, Leben mit allen Seinen Leiden(생생으로 부터 타생으로의 전생)도 윤회의 역어이다. 윤회는 서구어로 ①transmigration ②metempsychosis ③Seelenwanderung 등으로 통용되는데, 이는 '흔들리다'나 '흔들(흔들)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후 Psyche, Seele로 표현되는 존재가 차체가 새롭게 생긴다는 의미이다. 이 Sam-sara는 불교경전에서 윤회·윤회·윤회의 역어로 쓰인다.

따라서 윤회(Samsara-dukha)를 생사(生老病死)를 뜻하는 것이다.

윤회는 전술한 Sam-sro를 어원으로 하는 이상, 또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갖는다.

A. 원제로부터 내세로의 展轉相續을 제1조건으로 하되 끊어지지 않는다.

B. A와 함께 상속연속하는 주체가 끊어지지 않는다.

C. 윤회하는 개개의 존재는 그런 까닭에 개별적으로 하여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윤회사상이 성립하는데는 적어도 '내세의 결정'과 '윤회하는 무엇(what)의 존재'의 두가지

제27회 동대신문 학술상 인문과학분야 본상

근본요소가 그의 근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인간이 시간에 한정한, 즉, 죽음을 보지 때문에 그 시간을 초월하여 인간적 존재

없지만 있다의 무수한 윤회를 해결

로 영원히 흐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에 인주의 정지, 그의 지지를 구하고 있는 것이 통례일 것이다.

그러므로, 윤회사상에는 이 세계(this world)를 초월하여 타세계(another world) 즉, 내세를 상징하는 것이라. 또 그 내세에 지속되는 주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인하면, 내세를 예상하는 것과 그 속에 주체의 존재와

그 지속성의 전제는 윤회사상을 일으키는 근본요인이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러한 윤회사상이 인도에서는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II) 윤회사상의 기원과 그 근거

Indo의 Veda 문헌에는 'manas(정)'과 'asu(생기)'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인간이 죽음을 버리고 내세로 태어날 때 몸을 버리지만, 정신은 계속된다는 뜻으로 나타난다. 이런 데에서 우리는 인도

의 윤회사상이 발생한 때는 Brahmana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하나의 학설로서, 완전한 기본적 학설을 얻게된 것은 Upanisad시대에 들어온 다음 부터이다.

(III) Upanisad의 유아윤회설

전절에서 asu-prana-atman으로 이어지는 Brahmana까지의 '참다운 주체, 윤회의 주체'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그러면, 본질에서 그런 불변의 주체에 대한 Upanisad의 윤회설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상술한 Brahmana시대 윤회의 주체, 즉 atman의 속성 가운데서 특히 '불변의 본질'이라는 점을 따져 보자. 그것을 전 우주의 근본원리 곧 Brahman(梵)과 동일하다는 (범이원)에 대해 심화시킨 것은 Upanisad의 철학이다. 이 Upanisad의 철학에서 atman은 만의 우주장조의 체원이다. 만유의 본체로서 (나)의 태두리까지 벗어난다. 이러한 atman을 중심으로 한 Upanisad의 윤회설을 an-atman을 중심으로 한 불교의 윤회설과 대비하여 학자들은 유아윤회설이라고 하고 불교의 윤회설을 무아윤회설이라고 한다.

Upanisad의 윤회설을 볼 수 있는 것은 二道五火설(paracagni-vidya)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도(Devayana)의 과정이다. 이 신도의 과정은 해설자가 범(天)에 도달하는 길(道)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윤회론의 본래의 의미와 일치하지는 않

는다. 본래 윤회의미는 기쁜 바 있는 'die wandung aus einem Leben in ein anderes, eben mit allen seinen Leiden'로서 즉, 영생·타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서라도 (A'→B')의 이동, 회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윤회의미가 벗어난다는 것이 해탈이므로, 윤회론으로의 과정은 끝없는 진행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해탈하지 못하는 한의 계속되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를 기호화하는 데는 직선보다 원이 그것을 나타내는 데 효율적인 것이다. 원은 반드시 반복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탈하기까지의 지속적인 과정을 뜻한다. 오해와 조도는 원(○)의 형태로서 지속의 형태에 부합한다. 그러나, 신도는 (→)로서 계속적이지 않다. 단절된 (→) 선분으로 끊어 발생한다. 즉, 이것은 해탈로서 벗어날 수 있는 윤회에서의 탈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도는 '해탈의 과정'이라 하거나, 또는 '(윤회+해탈과정)'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이는 순전히 (윤회)만의 과정은 아닌 것이다. 그 래도 이것이 '윤회론의 과정'이라 하면 논리적으로 옳은 것이다.

이와 같은 윤회론에서 윤회론적 생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여러 신들은 그의 뜻을 알고, 그에게 대항하기를 이후부터는 신상을 떠난 자만이 불사에 들어갈 것이다.』

『사자는 이 세상을 떠나자 二道의 화염의 사이를 지나는데 악인은 곧 타라타로 선인을 해를 받지 않고 지나가서 선조들이나 또는 天界에 이른다.』

『사후의 영혼은 천정에 떨어져서 선악의 업을 헤아려 그에 따라 상벌을 받는다. 이들 문중에 의하면 윤회가 윤회전생함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있고, 전생을 돕는 주체는 물론 자아이지만은 전생을 하는 데에는 전생을 돕는 조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인을 하는 것이 곧 karma(업)이다. 업이야말로 윤회전생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또, Brahmana시대에 들어와서, 죽음과 삶을 결정지었던 'asu'라는 말은 prana(호흡)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이 시기에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의 모든 정신기능(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atman이라고 한다. prana와 atman은 이리하여 죽지 않는 불멸의 근원적 주체로서 다같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 하게 되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Brahmana시대의 사후세계에서 prana는 atman에 흡수되고 만다. 이어서 죽음에 의하여 몸을 떠나가는 것은 manas, asu가 아니라 이제 atman이다. 이런, Brahmana시대의 주안점도 역시 죽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죽지 않는 영인 불변의 '참다운 주체'를 찾는데 있었다. 상술한 바에서, 인도철학 사상史上

의 윤회사상의 시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manas'나 'asu'가 몸을 버린 뒤 떨어져 있고 그 자체를 계속한다면, 이 불멸의 'manas'나 'asu'는 다시 어떤 몸을 받아 그것과 결합한다는 생각을 하게될 것이 예상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Veda시대에 이어 Brahmana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주로 Veda계의 Satapatha-Brahmana에서 이 세계를 떠날 때에는 그 의향에 따라서 내세가 결합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업설(Karma vada)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 즉, 『사람은 의향(krata)에 따라 형성된다. 이 세계를 떠날 때 의향에 의하여 미래의 생을 받는다. Atman에 귀의하라. 영기는 그의 절이다. 생명은 그의 신이다. 광명은 그의 형태이다. 작은 그의 형이다.』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윤회론에서 윤회론적 생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여러 신들은 그의 뜻을 알고, 그에게 대항하기를 이후부터는 신상을 떠난 자만이 불사에 들어갈 것이다.』

『사자는 이 세상을 떠나자 二道의 화염의 사이를 지나는데 악인은 곧 타라타로 선인을 해를 받지 않고 지나가서 선조들이나 또는 天界에 이른다.』

『사후의 영혼은 천정에 떨어져서 선악의 업을 헤아려 그에 따라 상벌을 받는다. 이들 문중에 의하면 윤회가 윤회전생함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있고, 전생을 돕는 주체는 물론 자아이지만은 전생을 하는 데에는 전생을 돕는 조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인을 하는 것이 곧 karma(업)이다. 업이야말로 윤회전생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또, Brahmana시대에 들어와서, 죽음과 삶을 결정지었던 'asu'라는 말은 prana(호흡)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이 시기에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의 모든 정신기능(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atman이라고 한다. prana와 atman은 이리하여 죽지 않는 불멸의 근원적 주체로서 다같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 하게 되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Brahmana시대의 사후세계에서 prana는 atman에 흡수되고 만다. 이어서 죽음에 의하여 몸을 떠나가는 것은 manas, asu가 아니라 이제 atman이다. 이런, Brahmana시대의 주안점도 역시 죽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죽지 않는 영인 불변의 '참다운 주체'를 찾는데 있었다. 상술한 바에서, 인도철학 사상史上

의 윤회사상의 시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manas'나 'asu'가 몸을 버린 뒤 떨어져 있고 그 자체를 계속한다면, 이 불멸의 'manas'나 'asu'는 다시 어떤 몸을 받아 그것과 결합한다는 생각을 하게될 것이 예상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Veda시대에 이어 Brahmana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주로 Veda계의 Satapatha-Brahmana에서 이 세계를 떠날 때에는 그 의향에 따라서 내세가 결합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업설(Karma vada)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 즉, 『사람은 의향(krata)에 따라 형성된다. 이 세계를 떠날 때 의향에 의하여 미래의 생을 받는다. Atman에 귀의하라. 영기는 그의 절이다. 생명은 그의 신이다. 광명은 그의 형태이다. 작은 그의 형이다.』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윤회론에서 윤회론적 생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여러 신들은 그의 뜻을 알고, 그에게 대항하기를 이후부터는 신상을 떠난 자만이 불사에 들어갈 것이다.』

『사자는 이 세상을 떠나자 二道의 화염의 사이를 지나는데 악인은 곧 타라타로 선인을 해를 받지 않고 지나가서 선조들이나 또는 天界에 이른다.』

『사후의 영혼은 천정에 떨어져서 선악의 업을 헤아려 그에 따라 상벌을 받는다. 이들 문중에 의하면 윤회가 윤회전생함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있고, 전생을 돕는 주체는 물론 자아이지만은 전생을 하는 데에는 전생을 돕는 조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인을 하는 것이 곧 karma(업)이다. 업이야말로 윤회전생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또, Brahmana시대에 들어와서, 죽음과 삶을 결정지었던 'asu'라는 말은 prana(호흡)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이 시기에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의 모든 정신기능(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atman이라고 한다. prana와 atman은 이리하여 죽지 않는 불멸의 근원적 주체로서 다같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 하게 되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Brahmana시대의 사후세계에서 prana는 atman에 흡수되고 만다. 이어서 죽음에 의하여 몸을 떠나가는 것은 manas, asu가 아니라 이제 atman이다. 이런, Brahmana시대의 주안점도 역시 죽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죽지 않는 영인 불변의 '참다운 주체'를 찾는데 있었다. 상술한 바에서, 인도철학 사상史上

의 윤회사상의 시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manas'나 'asu'가 몸을 버린 뒤 떨어져 있고 그 자체를 계속한다면, 이 불멸의 'manas'나 'asu'는 다시 어떤 몸을 받아 그것과 결합한다는 생각을 하게될 것이 예상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Veda시대에 이어 Brahmana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주로 Veda계의 Satapatha-Brahmana에서 이 세계를 떠날 때에는 그 의향에 따라서 내세가 결합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업설(Karma vada)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 즉, 『사람은 의향(krata)에 따라 형성된다. 이 세계를 떠날 때 의향에 의하여 미래의 생을 받는다. Atman에 귀의하라. 영기는 그의 절이다. 생명은 그의 신이다. 광명은 그의 형태이다. 작은 그의 형이다.』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윤회론에서 윤회론적 생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여러 신들은 그의 뜻을 알고, 그에게 대항하기를 이후부터는 신상을 떠난 자만이 불사에 들어갈 것이다.』

『사자는 이 세상을 떠나자 二道의 화염의 사이를 지나는데 악인은 곧 타라타로 선인을 해를 받지 않고 지나가서 선조들이나 또는 天界에 이른다.』

『사후의 영혼은 천정에 떨어져서 선악의 업을 헤아려 그에 따라 상벌을 받는다. 이들 문중에 의하면 윤회가 윤회전생함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있고, 전생을 돕는 주체는 물론 자아이지만은 전생을 하는 데에는 전생을 돕는 조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인을 하는 것이 곧 karma(업)이다. 업이야말로 윤회전생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또, Brahmana시대에 들어와서, 죽음과 삶을 결정지었던 'asu'라는 말은 prana(호흡)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이 시기에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의 모든 정신기능(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atman이라고 한다. prana와 atman은 이리하여 죽지 않는 불멸의 근원적 주체로서 다같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 하게 되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Brahmana시대의 사후세계에서 prana는 atman에 흡수되고 만다. 이어서 죽음에 의하여 몸을 떠나가는 것은 manas, asu가 아니라 이제 atman이다. 이런, Brahmana시대의 주안점도 역시 죽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죽지 않는 영인 불변의 '참다운 주체'를 찾는데 있었다. 상술한 바에서, 인도철학 사상史上

의 윤회사상의 시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manas'나 'asu'가 몸을 버린 뒤 떨어져 있고 그 자체를 계속한다면, 이 불멸의 'manas'나 'asu'는 다시 어떤 몸을 받아 그것과 결합한다는 생각을 하게될 것이 예상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Veda시대에 이어 Brahmana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주로 Veda계의 Satapatha-Brahmana에서 이 세계를 떠날 때에는 그 의향에 따라서 내세가 결합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업설(Karma vada)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 즉, 『사람은 의향(krata)에 따라 형성된다. 이 세계를 떠날 때 의향에 의하여 미래의 생을 받는다. Atman에 귀의하라. 영기는 그의 절이다. 생명은 그의 신이다. 광명은 그의 형태이다. 작은 그의 형이다.』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윤회론에서 윤회론적 생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여러 신들은 그의 뜻을 알고, 그에게 대항하기를 이후부터는 신상을 떠난 자만이 불사에 들어갈 것이다.』

『사자는 이 세상을 떠나자 二道의 화염의 사이를 지나는데 악인은 곧 타라타로 선인을 해를 받지 않고 지나가서 선조들이나 또는 天界에 이른다.』

『사후의 영혼은 천정에 떨어져서 선악의 업을 헤아려 그에 따라 상벌을 받는다. 이들 문중에 의하면 윤회가 윤회전생함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있고, 전생을 돕는 주체는 물론 자아이지만은 전생을 하는 데에는 전생을 돕는 조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인을 하는 것이 곧 karma(업)이다. 업이야말로 윤회전생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또, Brahmana시대에 들어와서, 죽음과 삶을 결정지었던 'asu'라는 말은 prana(호흡)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이 시기에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의 모든 정신기능(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atman이라고 한다. prana와 atman은 이리하여 죽지 않는 불멸의 근원적 주체로서 다같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 하게 되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Brahmana시대의 사후세계에서 prana는 atman에 흡수되고 만다. 이어서 죽음에 의하여 몸을 떠나가는 것은 manas, asu가 아니라 이제 atman이다. 이런, Brahmana시대의 주안점도 역시 죽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죽지 않는 영인 불변의 '참다운 주체'를 찾는데 있었다. 상술한 바에서, 인도철학 사상史上

의 윤회사상의 시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manas'나 'asu'가 몸을 버린 뒤 떨어져 있고 그 자체를 계속한다면, 이 불멸의 'manas'나 'asu'는 다시 어떤 몸을 받아 그것과 결합한다는 생각을 하게될 것이 예상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Veda시대에 이어 Brahmana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주로 Veda계의 Satapatha-Brahmana에서 이 세계를 떠날 때에는 그 의향에 따라서 내세가 결합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업설(Karma vada)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 즉, 『사람은 의향(krata)에 따라 형성된다. 이 세계를 떠날 때 의향에 의하여 미래의 생을 받는다. Atman에 귀의하라. 영기는 그의 절이다. 생명은 그의 신이다. 광명은 그의 형태이다. 작은 그의 형이다.』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윤회론에서 윤회론적 생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여러 신들은 그의 뜻을 알고, 그에게 대항하기를 이후부터는 신상을 떠난 자만이 불사에 들어갈 것이다.』

『사자는 이 세상을 떠나자 二道의 화염의 사이를 지나는데 악인은 곧 타라타로 선인을 해를 받지 않고 지나가서 선조들이나 또는 天界에 이른다.』

『사후의 영혼은 천정에 떨어져서 선악의 업을 헤아려 그에 따라 상벌을 받는다. 이들 문중에 의하면 윤회가 윤회전생함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있고, 전생을 돕는 주체는 물론 자아이지만은 전생을 하는 데에는 전생을 돕는 조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인을 하는 것이 곧 karma(업)이다. 업이야말로 윤회전생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것과 같다. atman을 아는 자는 atman과 혼연일체가 된다. 즉, 불을 수 있는 것이 Brahma를 아는 것이다. 즉, 범이원(범)과 원이원(원)의 결합이다. atman(=Brahman)과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atman은 윤회의 주체이므로 윤회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해탈은 있을 수 없다. 다시 이것을 회로도로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업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B부분이 문제인 것이다. 이것을 Brahmanism을 비롯한 존주론자들은 유신적입장에서 해결한다. 그러나, 초기불교의 근본적 태도는, 신과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의 부정이 있다. 즉, 업설에서 불 수 있는 것이 전교의 근본입장은 '형이상학의 부정'과 '현실의 직관 의식'에 있다. 그중에서도, 후자가 초기불교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심이 된다.

이러한 불교의 교리체계에서 업설은 필연적으로 삼세인 과설로 전진하게 된다. 왜냐하면 업설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문제가 삼세인과설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①현재에서 업인이 발전되지 않는 업으로 전생에 나타났음을 뜻하고 ②업과 나타났음을 뜻하는 현재의 업은 내세에 받음이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업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삼세인과설을 도입한 것은 윤회론의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윤회론에서 윤회론적 생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여러 신들은 그의 뜻을 알고, 그에게 대항하기를 이후부터는 신상을 떠난 자만이 불사에 들어갈 것이다.』

『사자는 이 세상을 떠나자 二道의 화염의 사이를 지나는데 악인은 곧 타라타로 선인을 해를 받지 않고 지나가서 선조들이나 또는 天界에 이른다.』

『사후의 영혼은 천정에 떨어져서 선악의 업을 헤아려 그에 따라 상벌을 받는다. 이들 문중에 의하면 윤회가 윤회전생함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있고, 전생을 돕는 주체는 물론 자아이지만은 전생을 하는 데에는 전생을 돕는 조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인을 하는 것이 곧 karma(업)이다. 업이야말로 윤회전생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또, Brahmana시대에 들어와서, 죽음과 삶을 결정지었던 'asu'라는 말은 prana(호흡)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이 시기에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의 모든 정신기능(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atman이라고 한다. prana와 atman은 이리하여 죽지 않는 불멸의 근원적 주체로서 다같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 하게 되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Brahmana시대의 사후세계에서 prana는 atman에 흡수되고 만다. 이어서 죽음에 의하여 몸을 떠나가는 것은 manas, asu가 아니라 이제 atman이다. 이런, Brahmana시대의 주안점도 역시 죽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죽지 않는 영인 불변의 '참다운 주체'를 찾는데 있었다. 상술한 바에서, 인도철학 사상史上

의 윤회사상의 시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manas'나 'asu'가 몸을 버린 뒤 떨어져 있고 그 자체를 계속한다면, 이 불멸의 'manas'나 'asu'는 다시 어떤 몸을 받아 그것과 결합한다는 생각을 하게될 것이 예상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Veda시대에 이어 Brahmana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주로 Veda계의 Satapatha-Brahmana에서 이 세계를 떠날 때에는 그 의향에 따라서 내세가 결합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업설(Karma vada)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 즉, 『사람은 의향(krata)에 따라 형성된다. 이 세계를 떠날 때 의향에 의하여 미래의 생을 받는다. Atman에 귀의하라. 영기는 그의 절이다. 생명은 그의 신이다. 광명은 그의 형태이다. 작은 그의 형이다.』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윤회론에서 윤회론적 생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여러 신들은 그의 뜻을 알고, 그에게 대항하기를 이후부터는 신상을 떠난 자만이 불사에 들어갈 것이다.』

『사자는 이 세상을 떠나자 二道의 화염의 사이를 지나는데 악인은 곧 타라타로 선인을 해를 받지 않고 지나가서 선조들이나 또는 天界에 이른다.』

『사후의 영혼은 천정에 떨어져서 선악의 업을 헤아려 그에 따라 상벌을 받는다. 이들 문중에 의하면 윤회가 윤회전생함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있고, 전생을 돕는 주체는 물론 자아이지만은 전생을 하는 데에는 전생을 돕는 조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인을 하는 것이 곧 karma(업)이다. 업이야말로 윤회전생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또, Brahmana시대에 들어와서, 죽음과 삶을 결정지었던 'asu'라는 말은 prana(호흡)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이 시기에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의 모든 정신기능(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atman이라고 한다. prana와 atman은 이리하여 죽지 않는 불멸의 근원적 주체로서 다같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 하게 되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Brahmana시대의 사후세계에서 prana는 atman에 흡수되고 만다. 이어서 죽음에 의하여 몸을 떠나가는 것은 manas, asu가 아니라 이제 atman이다. 이런, Brahmana시대의 주안점도 역시 죽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죽지 않는 영인 불변의 '참다운 주체'를 찾는데 있었다. 상술한 바에서, 인도철학 사상史上

의 윤회사상의 시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manas'나 'asu'가 몸을 버린 뒤 떨어져 있고 그 자체를 계속한다면, 이 불멸의 'manas'나 'asu'는 다시 어떤 몸을 받아 그것과 결합한다는 생각을 하게될 것이 예상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Veda시대에 이어 Brahmana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주로 Veda계의 Satapatha-Brahmana에서 이 세계를 떠날 때에는 그 의향에 따라서 내세가 결합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업설(Karma vada)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 즉, 『사람은 의향(krata)에 따라 형성된다. 이 세계를 떠날 때 의향에 의하여 미래의 생을 받는다. Atman에 귀의하라. 영기는 그의 절이다. 생명은 그의 신이다. 광명은 그의 형태이다. 작은 그의 형이다.』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윤회론에서 윤회론적 생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여러 신들은 그의 뜻을 알고, 그에게 대항하기를 이후부터는 신상을 떠난 자만이 불사에 들어갈 것이다.』

『사자는 이 세상을 떠나자 二道의 화염의 사이를 지나는데 악인은 곧 타라타로 선인을 해를 받지 않고 지나가서 선조들이나 또는 天界에 이른다.』

『사후의 영혼은 천정에 떨어져서 선악의 업을 헤아려 그에 따라 상벌을 받는다. 이들 문중에 의하면 윤회가 윤회전생함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있고, 전생을 돕는 주체는 물론 자아이지만은 전생을 하는 데에는 전생을 돕는 조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인을 하는 것이 곧 karma(업)이다. 업이야말로 윤회전생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또, Brahmana시대에 들어와서, 죽음과 삶을 결정지었던 'asu'라는 말은 prana(호흡)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이 시기에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의 모든 정신기능(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atman이라고 한다. prana와 atman은 이리하여 죽지 않는 불멸의 근원적 주체로서 다같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 하게 되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Brahmana시대의 사후세계에서 prana는 atman에 흡수되고 만다. 이어서 죽음에 의하여 몸을 떠나가는 것은 manas, asu가 아니라 이제 atman이다. 이런, Brahmana시대의 주안점도 역시 죽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죽지 않는 영인 불변의 '참다운 주체'를 찾는데 있었다. 상술한 바에서, 인도철학 사상史上

의 윤회사상의 시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manas'나 'asu'가 몸을 버린 뒤 떨어져 있고 그 자체를 계속한다면, 이 불멸의 'manas'나 'asu'는 다시 어떤 몸을 받아 그것과 결합한다는 생각을 하게될 것이 예상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Veda시대에 이어 Brahmana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주로 Veda계의 Satapatha-Brahmana에서 이 세계를 떠날 때에는 그 의향에 따라서 내세가 결합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업설(Karma vada)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 즉, 『사람은 의향(krata)에 따라 형성된다. 이 세계를 떠날 때 의향에 의하여 미래의 생을 받는다. Atman에 귀의하라. 영기는 그의 절이다. 생명은 그의 신이다. 광명은 그의 형태이다. 작은 그의 형이다.』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윤회론에서 윤회론적 생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여러 신들은 그의 뜻을 알고, 그에게 대항하기를 이후부터는 신상을 떠난 자만이 불사에 들어갈 것이다.』

『사자는 이 세상을 떠나자 二道의 화염의 사이를 지나는데 악인은 곧 타라타로 선인을 해를 받지 않고 지나가서 선조들이나 또는 天界에 이른다.』

『사후의 영혼은 천정에 떨어져서 선악의 업을 헤아려 그에 따라 상벌을 받는다. 이들 문중에 의하면 윤회가 윤회전생함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있고, 전생을 돕는 주체는 물론 자아이지만은 전생을 하는 데에는 전생을 돕는 조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인을 하는 것이 곧 karma(업)이다. 업이야말로 윤회전생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또, Brahmana시대에 들어와서, 죽음과 삶을 결정지었던 'asu'라는 말은 prana(호흡)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이 시기에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의 모든 정신기능(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atman이라고 한다. prana와 atman은 이리하여 죽지 않는 불멸의 근원적 주체로서 다같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 하게 되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Brahmana시대의 사후세계에서 prana는 atman에 흡수되고 만다. 이어서 죽음에 의하여 몸을 떠나가는 것은 manas, asu가 아니라 이제 atman이다. 이런, Brahmana시대의 주안점도 역시 죽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죽지 않는 영인 불변의 '참다운 주체'를 찾는데 있었다. 상술한 바에서, 인도철학 사상史上

의 윤회사상의 시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manas'나 'asu'가 몸을 버린 뒤 떨어져 있고 그 자체를 계속한다면, 이 불멸의 'manas'나 'asu'는 다시 어떤 몸을 받아 그것과 결합한다는 생각을 하게될 것이 예상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Veda시대에 이어 Brahmana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주로 Veda계의 Satapatha-Brahmana에서 이 세계를 떠날 때에는 그 의향에 따라서 내세가 결합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업설(Karma vada)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 즉, 『사람은 의향(krata)에 따라 형성된다. 이 세계를 떠날 때 의향에 의하여 미래의 생을 받는다. Atman에 귀의하라. 영기는 그의 절이다. 생명은 그의 신이다. 광명은 그의 형태이다. 작은 그의 형이다.』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윤회론에서 윤회론적 생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여러 신들은 그의 뜻을 알고, 그에게 대항하기를 이후부터는 신상을 떠난 자만이 불사에 들어갈 것이다.』

『사자는 이 세상을 떠나자 二道의 화염의 사이를 지나는데 악인은 곧 타라타로 선인을 해를 받지 않고 지나가서 선조들이나 또는 天界에 이른다.』

『사후의 영혼은 천정에 떨어져서 선악의 업을 헤아려 그에 따라 상벌을 받는다. 이들 문중에 의하면 윤회가 윤회전생함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있고, 전생을 돕는 주체는 물론 자아이지만은 전생을 하는 데에는 전생을 돕는 조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인을 하는 것이 곧 karma(업)이다. 업이야말로 윤회전생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또, Brahmana시대에 들어와서, 죽음과 삶을 결정지었던 'asu'라는 말은 prana(호흡)이라는 말로 대체된다. 이 시기에 또 다른 특징은 인간의 모든 정신기능(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atman이라고 한다. prana와 atman은 이리하여 죽지 않는 불멸의 근원적 주체로서 다같이 최고의 위치를 차지 하게 되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Brahmana시대의 사후세계에서 prana는 atman에 흡수되고 만다. 이어서 죽음에 의하여 몸을 떠나가는 것은 manas, asu가 아니라 이제 atman이다. 이런, Brahmana시대의 주안점도 역시 죽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죽지 않는 영인 불변의 '참다운 주체'를 찾는데 있었다. 상술한 바에서, 인도철학 사상史上

의 윤회사상의 시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manas'나 'asu'가 몸을 버린 뒤 떨어져 있고 그 자체를 계속한다면, 이 불멸의 'manas'나 'asu'는 다시 어떤 몸을 받아 그것과 결합한다는 생각을 하게될 것이 예상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Veda시대에 이어 Brahmana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주로 Veda계의 Satapatha-Brahmana에서 이 세계를 떠날 때에는 그 의향에 따라서 내세가 결합된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업설(Karma vada)의 선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 즉, 『사람은 의향(krata)에 따라 형성된다. 이 세계를 떠날 때 의향에 의하여 미래의 생을 받는다. Atman에 귀의하라. 영기는 그의 절이다. 생명은 그의 신이다. 광명은 그의 형태이다. 작은 그의 형이다.』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윤회론에서 윤회론적 생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이와 같은 윤회론에서 윤회론적 생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

『여러 신들은 그의 뜻을 알고, 그에게 대항하기를 이후부터는 신상을 떠난 자만이 불사에 들어갈 것이다.』

『사자는 이 세상을 떠나자 二道의 화염의 사이를 지나는데 악인은 곧 타라타로 선인을 해를 받지 않고 지나가서 선조들이나 또는 天界에 이른다.』

『사후의 영혼은 천정에 떨어져서 선악의 업을 헤아려 그에 따라 상벌을 받는다. 이들 문중에 의하면 윤회가 윤회전생함은 이미 기정사실로 되어있고, 전생을 돕는 주체는 물론 자아이지만은 전생을 하는 데에는 전생을 돕는 조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조인을 하는 것이 곧 karma(업)이다. 업이야말로 윤회전생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다.』

제27회 동대신문 학술상 자연과학분야 본상

1. 연구사 및 연구 목적

식물조직배양은 무균상태에서 원형질체, 세포, 조직적 기관을 배양하는 총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지는데, 이 기법의 중요한 업적은 식물세포의 잠재능력인 세포의 전형성능의 발견이다. 즉 식물체의 살아있는 모든세포는 배양성의 수중과 형의 특성에 상관없이 완전한 식물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조직배양의 원리는 Schleiden(1838)과 Schwann(1839)에 의해 세포자체가 전형성을 가진다는 이론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지만, 당시에는 난세포나 포자 등의 생식세포를 제외한 체세포의 전형성을 증명해 보이지는 못했다. 1902년 Haberlandt에 의해 무균적으로 개체를 배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세포분열은 2개의 Hormone, 즉 도관부의 절부(Phloem)와 관련된 Leptohormone과 상처 Hormone에 의해 일어난다고 하였다. 최초의 성공적인 배양은 Kotte와 Robbig에 의해 분리된 근단으로부터, 새뿌리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어졌으며, 1908년 Salmon이 포플러줄기를 배양하여 Callus, 뿌리, 눈을 얻는데 성공함으로써 세포의 전형성능에 대한 가설이 점차 구체화되어 갔다. 오늘날 말하는 조직배양은 1934년 부터 White와 Gautheret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White는 토마토 뿌리를 무균 배양시키는데 성공했으며 Gautheret는 형성중 조직배양에 성공했다. 한편 Went는 Auxin을 발견함으로써 식물조직배양 기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는데 이것은 Salkowski가 이미 발견한 IAA였으며, Thimann등은 이 물질이 형성중의 활동을 촉진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1948년에 Skoog에 의해 Adenine이 세포분열 및 출아를 촉진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 사실을 가정하여 연구를 거듭한 결과 1955년 정어의 정자로부터 DNA를 분리하여 처음으로 Kinestine을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이 Kinestine은 다른 종류의 Cytokine을 발견하는데 초점이 되었으며 그후 Thimann과 Wickson에 의해 Kinestine이 출아를 유도한다는 것이 밝혀 지는 등 식물조직배양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조직배양에 가장 크게 사용되는 것이 생장 조절물질인데, 이 조절물질 중 Cytokine과 Auxin의 비율이 신조나 뿌리의 분화를 유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Skoog and Miller(1957)에 의해 밝혀진 이래 지금까지 거의 모든 식물의 조직배양에 적용되고 있다. 본 실험은 Cytokine 계열의 Kinestine과 Auxin 계열의 IAA의 혼합비율에 따른 적정배양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무균적 배양법이 합리적으로 잘 개발되어져서, 그 기술을 응용적인 측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되었다. 즉, 유전적인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조직배양 기술을 적용시키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중간 혹은 속간, 속속간의 교잡이 가능해져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조직배양은 실험식물학 분야에 큰 도움이 되었을 때, 식물생장과 분화에 관련된 기초적인 문제의 연구가 가능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에서 재배되는 중요한 과채류이다. 또한 수박은 콜리친 처리로 염색체를 배가시킨 4배체 수박에 2배체의 보통 수박을 교배한 3배체는 정상적인 배주도 꽃가루도 만들지 못하므로 3배체의 소위 씨 없는 수박이 된다. 이 3배체는 2배체 보통 수박에 비해 발아가 곤란하나, 초기생육이 왕성하며 병해도 강한 등 실용성이 매우 높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은 1988년 10월 말부터 1989년 9월까지 하였으며, 수박종자 만일, 용육, 금메

1% NaOCl에 5분 침지하여 소독하며, 95% Ethanol에 2, 3분간 침지하여 소독을 하며 각각의 소독처리 후엔 멸균수로 세척한다.

24시간 동안 멸균수에 침지, 70% Alcohol에 1분간 침지시킨 후, 세척하고 10% H2O2에 Tween80을 2-3방울 떨어뜨려 15분간 소독한다. 세척시에 Tween이 깨끗이 세척되도록 유의한다.

(2) 배양

Petridish에 거즈를 5-6장 겹쳐서 깔고 그 위에 filter-paper를 놓은 후 증류수를 10ml

jar를 사용했으며 시험관 마개는 2겹의 일루미늄 호일을 사용했다.

(5) 처리

자엽절단실험: 자엽의 수를 2엽, 1엽, 1/2엽이 되게 잘라 LS 기본배지에 IAA 0.05와 Kinestine 0.9를 첨가한 배지에서 5주간 배양하고 초장, 액이수, 뿌리수를 조사하여 자엽에 따른 생장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했다.

증식배지의 선택: 기본 배지와 IAA(0.05-0.5mm) Kinestine (0.25-2mm)까지를 조합을 달리해 가면서 만일(1, 2차), 용육(3차), 금메달(3차)의 조합, 액이수, 뿌리수를 조사하여 적절한 증식배지를 찾았으며, 배근유도실험: 액체배지에

상이란 이번결과, 일련년간의 모든 힘들었던 기억들-특히 익지 않은 실험 기구들과의 악전고투, 무명개체를 증식시켜야 하는 실험에서 감동되어 죽어가는 수박을 지켜보아야 했던 날들, 실험도중 사고로 병원하

당선소감

주는 파트너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 것이라고 생각한다.

"죽어간 수박에의 미안함을 달랠다"

저 달려가야 했던 일 등이 이제는 그 순간 순간들이 아름다운 추억과 새삼스러이 리움으로 남는다. 실험도 많고 이하고 속상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들에게 짜증났던 일도 있었지만 그럴때마다 다독여주고 용기를 북돋아

서로에게 축하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대견해 하는 눈빛들에게 "하루 할 수 있다는 신념과 우리가 해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이제 서로를 사랑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들,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 자신에

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하나의 큰 획을 그어 놓았다. 논문 쓰는 데 있어서 주위로 부터 받은 많은 도움에 감사함을 표시하며 지금까지 실험을 지도해 주신 식물생물학 김해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험실내

선배들과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영미
김윤미
정국숙
(농업생물학과4)

(4) 배근유도실험
배근실험은 IAA를 2mm 사용하여 배양하였는데 뿌리의 수와 길이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액체배양에서도 뿌리의 생장이 활발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4. 결론 및 고찰

씨 없는 수박의 경우 종자가 없으므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자 없이도 계속 개체를 증식시킬 수 있으며 증식률도 높은 액이 배양을 하게 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용육과 금메달 품종을 이용한 자엽절단 실험 결과 용육의 초장길이와 액이 수는 1/2엽과 1엽이 2엽보다 잘 자랐다. 금메달의 경우는 2엽과 1/2엽이 초장길이 가장 길었고, 액이는 1/2엽이 가장 많았으며, 뿌리수는 2엽이 많았다. 용육과 금메달의 품종비교는 Fig. 2, 3, 4에 나타난 바와같은 초장의 길이가 2엽에서 용육보다 약 2배정도 길게 나타났고, 뿌리에서는 1엽에서 용육이 금메달보다 약 2배 가장 많았다.

배지선택 실험에서는 만일 1차 실험의 경우 초장길이와 액이 수는 IAA와 Kinestine의 비가 2:1일때 가장 좋게 나타났고, 뿌리는 IAA와 Kinestine의 비가 2:1일때 3배배지와 8:1일 때 2배배지에서 그 수가 많았다.

금메달의 경우 IAA와 Kinestine의 비가 1:8일때 초장의 길이가 가장 길었고, 1:8, 1:10일때 액이 수가 가장 많았으며, 1:10일때 뿌리 수가 가장 많았다.

금메달과 용육을 사용한 최대개체증식 유도 실험에서 각각 1번 배지와 2번 배지일때, 그리고 자엽 수가 1/2엽 일때 액이 수가 가장 많았다.

이 실험에서는 감동받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식물 절편의 크기가 흡수율을 이용하면 액의 증식률은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데 마디면이나 가지끝으로 이루어진 절편에 이미 존재 있던 눈에서는 액이 형성되고 이 액은 액아를 발달시켜 직접 싹으로 자라게 된다. 이 때 작은 싹을 절취하여 같은 조성의 새로운 배지에 심으면 싹이 증식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무한정으로 계속되어 연중유지된다.

본 실험에서는 2차배양시 2번배지의 1/2엽에서 18개의 증식싹을 내었는데 (용육)이것을 계속 증식한다면 다수의 증식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社 告

제27회 동대신문 학술상 입상자 발표

「제27회 동대신문 학술상」의 입상자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인문과학 분야
 본상...김은희(보교과4년)
 「윤희론의 비교」
 저작...김세영(사학과3년)
 「호남지역 세습무(巫)인 당골의 고찰」
 ◇사회과학 분야
 본상...해당과 없음
 저작...임충범(농업경제학과4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의 저하요인 분석」
 ◇자연과학 분야
 본상...김영미(농업생물학과4년) 김윤미() 정국숙() -공동연구-
 「수박의 조직배양」
 저작...김기욱(한의학과3년) 김성배() 안병민() 손은희() -공동연구-
 「五輸穴 응용에 있어 기침의五行針, 運變을 이용한五行針, 運變命理的五行針, 運變命理的五行針의 원리적 고찰과 임상적 활용」
 ◇시상일시
 1989년 10월20일(금) 오후 1시30분 총정식
 ※입상자는 오는 10월20일 오후 1시까지 來社바람
 1989년 10월18일
 동대신문사

씨없는 수박 실용화위한 조직배양 연구

Table 1

Element	Stem length(cm)	Axillary bud number	Root numbers
2	1.32±1.11 a*	2.25±1.24 a*	2.81±2.76 a*
1	2.59±1.35 b	3.48±1.46 b	2.25±3.26 a
1/2	2.69±2.31 b	3.69±1.58 b	1.06±1.44 a

Table 2

Element	Stem length(cm)	Axillary bud number	Root numbers
2	2.83±2.02a*	2.95±1.33a*	2.38±2.64b*
1	1.82±1.73a	2.82±1.65a	1.03±1.68a
1/2	2.62±1.55ab	3.89±1.81b	0.59±1.28a

Table 3

Element	Stem length(cm)	Axillary bud number	Root numbers
1. 0	1.21±0.37a*	3.4±1.30a*	0.75±1.71a*
2. 005	1.43±1.26a	2.75±1.39a	1.75±2.44b
3. 025	1.43±1.26a	3.75±2.37a	1.75±2.76b
4. 045	1.70±1.24ab	2.38±2.20a	1.00±2.07ab
5. 09	1.23±0.44a	2.75±1.17a	0.13±0.36a

Table 4

Element	Axillary bud number	Root numbers
1. Q25	3.13±1.73a*	0.5±1.06a*
2. 1	3.38±1.51a	0.5±1.60a
3. 2	2.75±1.03a	0.13±0.35a
4. 05	3.38±1.41a	0.13±0.35a
5. 1	2.63±0.74a	0a
6. 2	2.25±0.89a	0.38±1.06a

Table 5

Element	Stem length(cm)	Axillary bud number	Root numbers
1. 2.0	1.04±0.44a*	3.1±1.52a*	0.3±0.68a*
2. 2.0	1.03±0.59a	4.1±2.08a	0.4±1.26a
3. 0.5	1.11±0.96a	2.9±2.42a	0.8±1.48a
4. 0.5	0.77±0.33a	2.9±1.20a	0.86±1.58a

Table 6

Element	Stem length(cm)	Axillary bud number	Root numbers
1.2.0	0.78±0.46a*	2.18±0.17a*	0.18±0.53a*
2.2.0	1.21±0.84 b	3.35±1.37b	0.06±0.24a
3.0.5	1.11±1.17a	3.35±2.34b	0.41±1.01b
4.0.5	0.6±0.35a	2.76±1.03a	0.12±0.33a

식물조직배양의 원리 이용한 실험비교 3배체 수박 급속증식의 실현방안 제시

하게 되었으며 식물을 번식하거나 아주 간단한 형태의 식물체를 양성하고 유지하며 생식질의 저장과 전분적인 식물 개량방법의 보조수단으로써의 이용 등 그 실용적인 가치가 크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3배체 수박 급속증식의 실현방안 제시

수박은 열대 아프리카에 야생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산지가 아프리카이고 저온해열한지방, 북미주의 남부, 남부

도를 가지고 있었다. 만일과 용육은 시중 종자 판매점에서 구입하였고 금메달은 수박을 사다가 종자를 채취하여 실험 하였다.

(2) 종자소독 및 파종

1)소독
가. 만일, 용육: 3.5% H2O2에 넣고 15분간 Vacuum을 하면서 소독한다.

graph (figure 2,3,4)에 나타내었는데 금메달에서는 2엽에서 초장의 길이가 약 2배정도 좋게 나타났고 뿌리에서는 1엽에서 용육이 금메달보다 약 2배정도 좋게 나타났으며 그 이외에는 품종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증식배지의 선택 실험

수박 조직 배양에 알맞는 배지내 Hormone농도를 구하기 위해 Kinestine 0-0.9IAA는 0-0.9까지 변화 시켰으며 Hormone조성에 따른 초장 액이뿌리의 영향을 Table3-1과 같다.

(3) 최대 증식개체 유도 실험

수박 조직 배양에 알맞는 배지내 Hormone농도를 구하기 위해 Kinestine 0-0.9IAA는 0-0.9까지 변화 시켰으며 Hormone조성에 따른 초장 액이뿌리의 영향을 Table3-1과 같다.

초장 길이는 3번 배지 (Kinestine 0.25IAA 0.45)에서 가장 길게 나타났고 액이의 수에선 유의성이 없었지만 역시 3번 배지에서 평균이 가장 좋았다. 뿌리수 역시 3번배지와 2번 배지에서 좋게 나타났으며 이것이 Hormone간의 비에 의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만일과 1/2엽에서 2엽의 2배정도 되게 자랐으며 액이수도 역시 1엽과 1/2엽에서 2배보다 1.5배정도 많았지만 뿌리수에 있어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파종 후 벌어진 자엽을 LS 기본배지에 Kinestine 0.9(9mm) IAA 0.05(9mm)를 첨가한 배지에 이식한 다음 5주후에 관찰한 결과는 Table 2-1과 같다.

초장길이는 2엽과 1/2엽이 1엽보다 1.5배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액이의 수는 1/2엽에서 1.4배정도 우수하였으며 뿌리수는 2엽이 2배정도 많게 나타났다.

액이는 보통 각 잎의 액에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싹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액이 발생을 통하여 싹을 증식하고 각 개체배양과 나옴은 마디분절을 이용하려면 초장길이 긴 것이 유리하고 절취할 수 있는 액이의 수가 많아야 하는데 이 두가지의 기관생장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뿌리의 발달을 억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원조건으로 볼때 용육과 금메달에서 공통으로 1/2엽이 2엽과 1점에 비해 우수하다고 관찰되었다. 식물에서 기관분화는 2가지의 호르몬 즉 Auxin 계열과 Cytinin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며 이는 화학물질의 절제농도보다는 양적인 상호관계(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이 정립되었다. IAA 농도가 높으면 세포의 증식과 뿌리의 분화에 유리한 반면 Kinestine의 농도가 높으면 노의 분화를 촉진시킨다고 하였으며 exogenous Hormone (외생 Hormone)의 수준에 달랐다. 2

배양기는 시험관과 baby-

가려 뽑고 나서

인문과학분야

「윤희론의 비교」 논문은 불교의 사상이나 교파중에서 대 매우 중요한 분야를 택하여 나름대로 잘 정리하였다. 특히 윤희론을 중립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불교의 그것을 비교하여, 그 장점과 특수성을 밝힌 점은 매우 돋보이고 있다.

洪潤植

(사범대 역사교육과교수)

사회과학분야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의 저하요인 분석」 논문은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 상당히 잘 정리하였다. 그러나 대개 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내용들로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아쉽다.

徐閔吉

(불교대 불교학과교수)

「호남지역 세습무(巫)인 당골의 고찰」 논문은 기층문화의 기반 내지 지방사의 자료를 통하여 한국사화발전의 한 단면을 이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발달의 우수성이 인정된다.

朱宗桓

(농과대농업경제학과교수)

자연과학분야

중자가 없는 수박은 씨가 없으므로 매년 2배체 수박의 생장점에 활착을 처리하여 3배체 수박을 만들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이 논문은 씨없는 수박의 급속증식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조직배양을 실시하였다는

가려 뽑고 나서

인문과학분야

「윤희론의 비교」 논문은 불교의 사상이나 교파중에서 대 매우 중요한 분야를 택하여 나름대로 잘 정리하였다. 특히 윤희론을 중립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불교의 그것을 비교하여, 그 장점과 특수성을 밝힌 점은 매우 돋보이고 있다.

洪潤植

(사범대 역사교육과교수)

사회과학분야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의 저하요인 분석」 논문은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 상당히 잘 정리하였다. 그러나 대개 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내용들로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아쉽다.

徐閔吉

(불교대 불교학과교수)

「호남지역 세습무(巫)인 당골의 고찰」 논문은 기층문화의 기반 내지 지방사의 자료를 통하여 한국사화발전의 한 단면을 이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발달의 우수성이 인정된다.

朱宗桓

(농과대농업경제학과교수)

자연과학분야

중자가 없는 수박은 씨가 없으므로 매년 2배체 수박의 생장점에 활착을 처리하여 3배체 수박을 만들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이 논문은 씨없는 수박의 급속증식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조직배양을 실시하였다는

金 炅 濟

(농과대 농학과 교수)

이번 제출된 이 논문은 5개의 이론 중 오해될만한 응용되고 있지않은 徹那의 개념까지 확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탐구하였다. 독특한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논문의 논지를 이끌어 갈 이론 정립은 학술한 점이 많고 보였고 또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통합시키는 것이 좀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면 훌륭한 논문이 되리라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본 논문은 전국한외과대학 학술대회에서 이미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安昌範

(한외대 한의학과 교수)

단과대 학술문화제 활발

지난5일「명진 학술문화제」필두로 7개 단과대서

서울캠퍼스 7개 단과대 학술제가 지난 5일 문과대 「명진 학술문화제」를 필두로 오는 28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문과대 학생회 주최 「명진 학술문화제」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중앙당 및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첫날인 5일은 오후 1시 불상 앞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통일관련명진학술 퀴즈대회가 중앙당에서, 통일노래연마 및 명진선전동경연대회가 중앙당에서 각각 열렸다.

둘째날인 6일은 오후 1시 「통일문학의 새 지평을 위하여」란 주제로 문과대 학생회 학술심포지엄이, 이어 오후 4

에는 김형수(시인, 녹두꽃 편집위원)씨 초청강연이 「문학가 지망생들을 위한 문예창작자의 자기기술」을 주제로 중앙당에서 각각 열렸다.

마지막날인 지난 7일은 오전 10시부터 전체학과 체육대회 및 대동놀이와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이과대 학생회 주최 「동리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교내 일원에서 열린다.

첫날인 25일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동국관(L301)에서 열리며, 26일은 법대연합체육대회와 오후 3시30분부터 대운동장에서 열리며 이어 오후 7시부터는 마당극 및 장기자랑을 벌이는 대동놀이한마당이 동국관 앞마당에서 각각 열린다.

마지막 날인 27일은 「증권의 내부자거래와 중·수뢰죄」를 주제로 제14회 형사모의제란이 오후 3시부터 중앙당에서 열리며, 이어 「법학도의 밤」이 오후 7시부터 체육관에서 각각 열린다.

사과대 학생회 주최 「능금제」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중앙당 및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첫날인 26일은 「모의국회」가 정오와 주위로 중앙당에서 열리며, 27일에는 「사회대문화제」가 중앙당에서, 28일에는 「사회대체육대회」가 대운동장에서 각각 열린다.

농과대 학생회 주최 「풍년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계원·계원농민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교내 일원에서 열린다.

첫날인 25일은 오전 9시 후문앞에서의 장승제와 저녁엔 계원·계원농민 80여명과 함께 「농민 학생 한마당」을 오후 2시 만해광장에서 갖는다.

둘째날인 26일에는 농민5중

과 학생회 주최 학술강연이 열리게 된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대운동장에서 체육대회와 대동제가 열린다.

마지막날인 27일은 여학생팔씨름대회, 풍년문화상사상 등이 열린다.

사범대학생회 주최 「학림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학림관(소강당) 및 중앙당

과 체육관에서 학술심포지엄과 체육대회 및 대동제의 행사로 열린다.

첫날인 25일 오후 1시 퀴즈경연대회가 학림관에서 열리고 3시에 학술부주최 학술심포지엄이 「사대의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학림관(소강당)에서 각각 열린다.

26일에는 「전교조 문화선전대 초청공연」이 오후 5시 중앙당에서 있고, 마지막날인 2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체육관에서 축구, 농구, 여자실내축구 등의 대동제를 열어 모든 행사를 마치게 된다.

야간강좌 학생회 주최 「남산골 한마당」이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대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열린다.

첫날인 21일에는 마라톤을 비롯한 체육대회가 대운동장에서 열리며 22일에는 야간강좌 7개학과 민중가요 경연대회가 열린다.



동학내에서 부정비리를 물고내고 진정한 자부심을 이룩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거듭되고 있다. 부정비리·직무유기 및 관련된 학생처장·총무처장의 사퇴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12일 학생들이 두 처장실의 문을 폐쇄함으로써 부정비리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글=지동철記者, 사진=유권준記者)

교무처장 퇴진 요구

서울·경주 노조서 결의

본지 1,000호 「회전 무대」권련에 실린 기사내용중에서 김교무처장이 「직원들은 교수제수들이나 받지, 노조가 교수 추방을 끌어와 쫓아내려고 한다」란 발언과 관련, 직원들이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서울캠퍼스 직원노조에서는 지난 14일 오후 2시 비상집행부의 의를 소집, 교무처장에게 노조 총회에서의 공개사과 및 본지에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오후 5시에 상무집행회를 열어 지난 5일 임시총회 개최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오전 10시 중앙당에서 전체직원 2백67명 중 1백58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교무처장 김교수의 「보직해임요구안」과 「교수보직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73대60으로 보직해임요구안을 채택하고

교무처장의 발언을 집중 성토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준배위원장과 김윤길부위원장 등이 총장을 면담하고 「교무처장의 발언은 직원을 단지 교수의 중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사고방식을 표출한 것」이라고 발언된 「이에 임시총회의 결의를 모아 교무처장의 보직해임을 전조위원의 연서로 강력히 요청한다」라는 노조추진장을 전달했다.

직원노조는 이번 사태와 교수보직추진 결과를 놓고 오는 18일(일) 성명서를 발표한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이번 사태와 관련, 지난 13일 노조원 일동명의 「김교수와의 만민을 규탄하며」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과 학생회 주최 학술강연이 열리게 된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대운동장에서 체육대회와 대동제가 열린다.

마지막날인 27일은 여학생팔씨름대회, 풍년문화상사상 등이 열린다.

사범대학생회 주최 「학림제」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학림관(소강당) 및 중앙당

민중운동 탄압 분쇄·노정권 퇴진

민주주의 학생연맹 「민주총장추대위」건설 제안도

본교 민주주의학생연맹(이하 민학연)발족식 및 민중운동탄압 분쇄 결의대회가 지난 13일 오후 2시 1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김관형(사학3)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족식에서 위원장 조시형(인철2)군은 발족선언문 낭독을 통해 「민중의 적, 악의근원 군사파쇼와 미제에 대해 남한사회의 총체적·과학적 인식하에 조직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대협·서총련의 투쟁방향이 부재한 현 시기에 새로운 정치투쟁체가 요구되고 있다」며 민족의 의를 밝혔다.

이어 부총학생회장 윤병현(독문4)군은 격려사를 통해 「민학연은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 총학생회의 깃발 아래 투쟁하자고 말했다.

또 박현주(국교·3)양은 이후 방향 및 정년 학생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통해 「민주적총장선

총학 11월 선거 등 회칙개정

대총 줄준위 재정 지원 항목 신설해

서울캠퍼스 총대의원회 회칙 개정소위는 지난 14일 「회칙개정발의안」을 중교, 개편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작업은 학생회칙 제94조에서 의거, 2학기들이 7개 문제와 6년 총학선거시기, 대총제개편, 부칙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시안은 대총에 관

민중운동 탄압 분쇄·노정권 퇴진

민주주의 학생연맹 「민주총장추대위」건설 제안도

본교 민주주의학생연맹(이하 민학연)발족식 및 민중운동탄압 분쇄 결의대회가 지난 13일 오후 2시 1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김관형(사학3)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족식에서 위원장 조시형(인철2)군은 발족선언문 낭독을 통해 「민중의 적, 악의근원 군사파쇼와 미제에 대해 남한사회의 총체적·과학적 인식하에 조직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대협·서총련의 투쟁방향이 부재한 현 시기에 새로운 정치투쟁체가 요구되고 있다」며 민족의 의를 밝혔다.

이어 부총학생회장 윤병현(독문4)군은 격려사를 통해 「민학연은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 총학생회의 깃발 아래 투쟁하자고 말했다.

또 박현주(국교·3)양은 이후 방향 및 정년 학생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통해 「민주적총장선

민중운동 탄압 분쇄·노정권 퇴진

민주주의 학생연맹 「민주총장추대위」건설 제안도

본교 민주주의학생연맹(이하 민학연)발족식 및 민중운동탄압 분쇄 결의대회가 지난 13일 오후 2시 1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앞에서 열렸다.

김관형(사학3)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발족식에서 위원장 조시형(인철2)군은 발족선언문 낭독을 통해 「민중의 적, 악의근원 군사파쇼와 미제에 대해 남한사회의 총체적·과학적 인식하에 조직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대협·서총련의 투쟁방향이 부재한 현 시기에 새로운 정치투쟁체가 요구되고 있다」며 민족의 의를 밝혔다.

이어 부총학생회장 윤병현(독문4)군은 격려사를 통해 「민학연은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 총학생회의 깃발 아래 투쟁하자고 말했다.

또 박현주(국교·3)양은 이후 방향 및 정년 학생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통해 「민주적총장선

3처1실장사표

교무처장·총무처장 사표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준배위원장과 김윤길부위원장 등이 총장을 면담하고 「교무처장의 발언은 직원을 단지 교수의 중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사고방식을 표출한 것」이라고 발언된 「이에 임시총회의 결의를 모아 교무처장의 보직해임을 전조위원의 연서로 강력히 요청한다」라는 노조추진장을 전달했다.

직원노조는 이번 사태와 교수보직추진 결과를 놓고 오는 18일(일) 성명서를 발표한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이번 사태와 관련, 지난 13일 노조원 일동명의 「김교수와의 만민을 규탄하며」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능한 미국인 노쇠

○...며칠전 난공불락의 철옹성(?) 주한미대사관을 서측연산하 「구국결사대」가 점거, 미국을 방문하는 No씨에게 심각한 경중을 올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미대사에서 CIA한국 지부총책을 역임한 그에게는 여유있다는 뜻이 「한미 우호관계에 아무영향이 없을 것」이라 논평.

교수회 기금 삭감 작전

○...은행을 상징적 기금식이 이 모음이 훨씬 지났는데 공사현장엔 울장현(?) 적막이 감돌아...

연유인즉 1원마저 아쉬운 이매에 시대가에서 某교수의 공로(?)로 백상감전법에 필요한 교수회 기금이 삭감되는 등 전통국적

어려나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불강중 ○...학자투수사를 위한 지지단속성에 동료학우들이 열혈이 넘도록 젊은 사대가 벌어 진후 지난 11일로 드디어 막이 내리긴 했는데... 친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휴문앞 째새 조심!

○...「화염병 사용자 엄단」조치이후 학과대학 주변에는 사복경찰인지 행사인지 모를 낯선사람들이 잠복근무를 하고 있다던데 본교도 예외일 순 없어...

화염병 사용자 적발시 적 발자에게 주어지는 「상금」 「특근」에 합입은 째새, 지난 16일 「화염병 대학생」 일 제검거명에 발발해 오락실 앞에서 시간가는 줄도 모르

온방골 상징탑 교묘수공로(?)로 재원 절대 부족

몇해전 슬즈의 에겐에게 당했던 수모를 빌려 받았던 듯 부시(富氏)에게 손발리려는 모양으로 유창한 영어로 언술하는 모습까지 보니 아예 미국명에서 실제 합이 어떨는지...

관심부족으로 기초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에 부회전주대주 이 「백상탑이 온방골의 상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상징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

한번쯤 찾아가 본 학우들이 몇이나 있었을런지...

이제야말로 진정 동양만 학우들이 단결해야 할때이며 하나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제 어렵지만...

경주 대총서 감사 실시 오는 23일부터 4일간

대총서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진현·고미서)를 구성하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1989년 2학기 각 기구별 예산감사, 선거공약이행 및 사업명가감사를 각 기구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세부일정을 보면 총학생회가 오는 27일 오후 3시, 각 단대는 24일 오전 11시~오후 5시, 현의

“서로 맺어지기 위한 노력”

대지는 우리 자신에 관한 모든 책들보다 더 많이 가르쳐준다. 왜냐하면 대지는 우리에게 저항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장애물과 겨울 때에 비로소 제 자신을 드러낸다. 그런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요하다. 대패라든지 쟁기가 있어야 한다. 농부는 경작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어떤 비법들을 조금씩 알아내는데, 그가 알아내는 진리는 보편적인 것이다.

평야의 여기저기에 드문드문 흩어져있는 불빛들은 저마다의 양식(糧食)을 찾아 반짝인다. 아주 양전한 시인의, 교원의, 목수의 등불까지도. 그러나 이 살아있는 불빛가운데에는 얼마나 많은 단려진 창들이, 얼마나 많은 꺼진 불들이, 얼마나 많은 잠든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서로 다시 맺어지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서로에 흩어져 있는 이 불빛들의 어느 것과 마음이 통하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다.

— 벵테리쿠라 《인간의 대지》 중에서 —

대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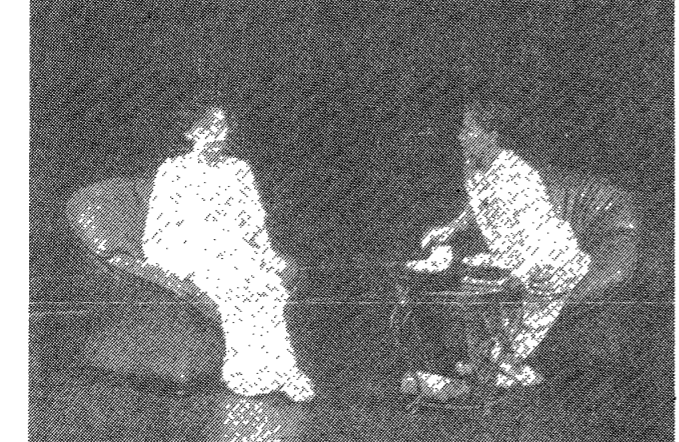


작업권과 참여상의 대안가관관

속에 현이 침투해들어와 아픔을 주고 철저히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의식속에 경우가 침투해 들어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순영에게는 정우의 현이 보여지며 가슴아픈 독백이 이어지고 현의 의식속에 정우의 실종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이 성고문의 추악한 기억과 맞물려 히스테리칼한 면으로 들어난다. 이모든것이 코러스적



인색체를 띠면서 관객에게 고백하듯 말해진다. 최근의 입수경사건, 권모양사건, 이모교실중사건을 얹어 놓은 듯



◇공권력의 극소제제에 의해 철택되었던 현실탈피

극단 실험극장의 제13회 서울연극제 참가작품인 '실비명'은 (정복근작 윤호진연출) 국가권력에 의해 고문을 당한 한 여대생과 의문의 실종을 당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있다.

은옥의 딸인 현이와 순영의 아들인 정우는 한때 연인이었으나 노동운동 중 하던 이들이 어느날 현이가 투옥되어 성고문을 받기 시작하고

관객 스스로 문제 인식 유도한 절제된 표현 심리묘사 부족으로 현 운동권 대변엔 역부족

주목자인 정우를 실토하게 되자 정우는 영동하게도 의문의 실종을 당한다. 순영은 아들의 생사를 백방으로 수소문 하다가 경찰서에서 미친노인네 취급을 받아 쫓겨난다. 얼마후 현이는 광기의 도움으로 출감하게 되고 추행당한 딸의 절점을 감추기위해 은옥은 가난한 고학생인 광식과 결혼시키려한다. 그러나 광식은 대학시절부터 친구들을 밀고하여 장학금을 받은 학원프락치이며 현이 아버지 회사에 구사대원이었다. 이 사실은 현이로부터 광식에 대한 중요성을 유방시켜 광식자신을 비참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는다.

결국 정우의 실종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현이는 결혼전날 정신이상자가 되어버리며 순영도 아들의 생사에 대한 의문을 구도자적 모습으로 인식하게 되어 '아들고 더러운 길을 지나 더 좋은 세상을 불러오려고 떠났다'고 믿는다.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분이 무겁고 암울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절제하고 숨겨가며 쓰러져가는 이 시대의 젊은 운동권들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자식을 구하려는 어머니, 그리고 뜻밖에도 자랑스럽게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려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이 작품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모두는 의식속에서 괴로움을 당한다. 아귀같은 삶을 살아온 은옥의 의식

이 작품은 그동안 금기시 해오던 정치권의 이야기를 우리의 동시대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간다.

이 실비명이 제13회 서울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된것은 연출의 절제되어진 표현의 강조와 부대의 공간용 현재와 저승의 세계로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표현하려고 애썼다는 점과 기성극단들의 보수성이 조금은 완화되어져간다는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아볼수있다.

양경모 (대화원 연극영화과 석사과정)

▲우친 성면의 결핍 증 (AIDS)에 감염된 남편을 둔 주부가 임신5개월째 출산이부름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동성연애의 경험을 가진 33살이 AIDS 감염자로 판명, 경악을 주고 있다. 이것은 이제 어디 한 곳의 이야기라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한국도 공식발표된 AIDS환자의 수가 50여명에 이르며, 1차 검사 결과 이상반응을 보여 양성인실자로 2차검사를 받아야 할것도 4백58건에 이르렀다. 이제 '침마 나야...'하는 강간녀 불구경도 철이 지난지 오래다. ▲AIDS는 예방과 치료와 거의 불가능한 난치의 병이다. '20세기의 흑사병'으로 불리는 AIDS는 그 진단할 수 없는 전파력으로 해서 이미 단순한 질병의 차원을 넘어 사회

윤리와 인간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현대인류의 고민이다. 그래서 서구의 AIDS전진국에서는 AIDS항체양성보급자의 사회 격리는 물론 의도적으로 AIDS를 전염시킨 자에 대한 극한 사법처리도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 ▲세계 AIDS환자의 65.4%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공식발표한 환자만도 8만4천명이며 AIDS항체의 양성보급자는 미국 인구의 2%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멸망한다면 마약과 AIDS가 주된 원인일 것으로 미 래학자들은 짐작하고 있다. 또한 AIDS대국으로서 미국의 우월성은(?) 그 탁월한 전파력에 있다. 남아프리카 등 몇몇 저개발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AIDS발생국의 세계적 공통점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현재 주한미군은 4만4천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앞서서 미국의 2%라는 산술적계수를 곱해보면 이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중 8백80명 이상이 AIDS감염자로 추정될 수 있다는 계산은 그리 어려운 계산이 아니다. 다시 여기에 주둔군이 아닌 정경으로서 밤의 낭만을 만끽하는 GI와 거기에 부나비처럼 달드리는 정체불명의 한국 여성들도 불야성을 이루는 미련의 밤을 연상한다면 실로 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주한미군이 사실은 해파 AIDS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결론은 무엇인가? 'AIDS의 추방은 미군의 추방으로' (碩)

『내일이면 농촌활동에 들어가는 여러분을 우선 환영합니다. 먼저, 농활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농촌현장에 직접 들어가 농민과 함께 부대끼면서 학생운동의 관념정신을 극복하고 역사변혁의 주체인 농민의 삶을 이해하며 그 실천을 통해 학생운동의 민주지향성을 구체화하고 학생과 농민간의 상호신뢰로 다져진 연대투쟁으로 농민운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을농촌활동을 하루 앞두고 육

'땀흘려 지은 농사 제값받자는데 왜 막느냐'

추계 농촌활동을 다녀와서

야실에서 합숙을 하면서 토론한 추곡수매가 저수익상과 수입개방등에 따른 농촌의 피폐성만 해법을 영항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더 깊게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농활에서 우리가 취해야할 자

농활이 학생들의 극기훈련의 장으로 전락, 지속적 후속활동이 없었음을 걱정했다. 그리고 농활 한두 번으로 수십, 수백년간 내려오던 농촌의 관습을 개혁하려는 생각과 농촌을 가르치려 왔다는 생각을 버

는 아저씨의 『내농사 내가지어 제 값 받겠다는데 정부가 왜 막느냐』 농민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냐는 의침은 우리에게 피해한 농촌현실의 단면을 보여주어 더욱 강고한 농민연대투쟁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마지막 날인 9일은 오전 벼베기 작업을 마친후 농활에 참가했던 1백20여명의 학생모두 송리면에 모여 풍물패의 걸놀이를 필두로 가을

농활이 학생들의 극기훈련의 장으로 전락, 지속적 후속활동이 없었음을 걱정했다. 그리고 농활 한두 번으로 수십, 수백년간 내려오던 농촌의 관습을 개혁하려는 생각과 농촌을 가르치려 왔다는 생각을 버

는 아저씨의 『내농사 내가지어 제 값 받겠다는데 정부가 왜 막느냐』 농민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냐는 의침은 우리에게 피해한 농촌현실의 단면을 보여주어 더욱 강고한 농민연대투쟁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마지막 날인 9일은 오전 벼베기 작업을 마친후 농활에 참가했던 1백20여명의 학생모두 송리면에 모여 풍물패의 걸놀이를 필두로 가을



◇지속적농촌활동전개가 시급하다. (사진은 경북 농민연합결성식)

세에 대해서 배웠다. 첫날인 7일, 아침에 일어나 구보와 아침식사를 하고 학교버스로 포항 영일군 송리면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아직은 푸른기가 남아있는 벼와 벌써 군데군데 추수를 끝낸 논과 함께 어우러진 파랑기만 한 하늘을 보며 벌써 가을이 절반이나 흘러가버렸다는 느낌속에 2백31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팀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농활에 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광천리에 도착해서 농민회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작업에 임하게 됐으나 학생회와 농민회간의 연락이 제대로 되지않아 급하게 농민회 회장택 논외 벼베기로 오후 작업을 했다. 서늘 날것이지만 모두들 열심히 벼베기를 해서 말과 후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하면서 해질녘에는 작업을 마칠수 있었다. 저녁시간에는 호불방문을 하여 주민들과의 상호신뢰감을 형성시켜 노력했다. 농활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리고 함께 일하면서 농민의 삶을 이해하기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농민회회장의 많은 모두를 깊게 생각하게 했다.

둘째날인 8일은 오전 벼베기 작

농촌활동 보고대회를 가지고 학교로 돌아왔다.

『깨끗한 선은 끊임없는 신심서 생긴다』 관념 실천

관화를 이어받으며 4컷만화를 이어받으며 범구에 나온 위와같은 말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요즘,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거의 '매일같이 만화를 접하고 있다.

만화는 다른 어떤 종류의 문화체보다도 자신의 사상이나 지향점, 생각들을 펜과 종이만 있으면 시간이나 공간등에 제한됨이 없이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부담없이 읽고도 깊숙히 파고들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매체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중문화라는 것들은 우민화를 위한 문화정책에 충실하며 소비향락적이며 피폐적인 다니며 강제 구멍을 위한 탄서서명작업과 면초수 유치를 위한 모건이 아내로, 자는 아내로, 2계 방범대부 꿈틀하는 것입니다. 지렁이 두 뱀은 꿈틀하는 법이죠. 이제 는 우리두 사람에게 살구 있습니다.

강씨는 단호한 어조로 시작한 서두와는 달리 생각이 말로 잘 안나오는 듯 답답한 표정으로 더듬거리 더듬거리 말하고 그냥 앉아 버렸다.

강씨는 짧은 시간에 끝이 났다. 다음재판을 선고하고 퇴장하는데 까지 한시간도 안 걸렸다.

강씨는 인혁에게 뭔가 말을 하려다가 호충원들에게 팔목을 잡힌채 끌려갔다.

오후의 햇살이 집요하게 내리쬐었다. 한층막을 발발케하는 거리는 오전보다 더욱 한산했다. 사람들은 무치비한 더위에 겁먹어 버린 것일까. 그래서 숨어 버린 것일까? 그러나 인혁은 더이상 나무그늘로 숨어 버리지 않았다. '제 방법대로 꿈틀거리기 것입니다.' 강씨의 진술이 머릿속으로 파고 들었다.

뭔가 머릿속이 정리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연수도 뭔가 풀릴듯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당신은?』

『집에 좀 들렀다 가야겠어요.』

『집엔?』

『지민이에게 해줄말이 있거든요.』

연수는 야릇한 표정을 남기고 급히 횡단도로 쪽으로 뛰어갔다.

연수가 뛰어간 쪽의 횡단도로에 파란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인혁은 그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이리도 먼지 같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끝—

맑음

최경인

(1)

독력이나?

외설이나?

여력이나? 아니면...

진실이나?

앞으로 맑은 강물을 손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해, 추상적

동대문학상 소설부문본상 7에서 이어짐

『나무 여러가지루 생각을 해 봤어. 근데 대책이 없어. 내 이렇게 내내 멍있던 지금도 한두눈쯤은 깨뜨려 버릴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걸론 안해. 결국엔 나만 깨지게 되지.』

『아 저놈들이 믿는거 없이 저러잖나? 그놈들이 다 한통속인걸.』

『그런 노점상들이 하나루 못쳐서 집단적으로 대항하면 어떨까요?』

『동생, 아서/ 그게 바로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야. 대변에 배매기에 바랍구먼이 날걸.』

『그럼 어떻게야 한다는 거요?』

인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인혁은 강씨가 끌려가며 쳐다보는 것을 외면하고 술잔을 들어 한입에 탁 털어넣었다. 술이 식도록 타고 흐르는 것이 찌릿하게 느껴졌다.

『저런놈들을 그냥 놔 둘수는 없어요. 결단코.』

인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강씨가 옆에서 환승을 길게 내쉬었다.

『동생같이 백년 용이. 우리네 인생은 이발 이배까지 이렇게 찌그러지지만 됐지. 이놈한테 치구. 저놈한테 뺏기구.』

『형님 / 우리두 살려면 못쳐서 싸워야 돼요.』

『싸워? 아너 그런 동생같은 사람한테 안 어울려.』

『아나. 그런 뺨박질 팔구요. 이런 착취와 폭력에 대항해서 사람답게 살수 있는 날까지 투쟁을 하잔 말요.』

『뺨박질이 아니라 투쟁?』

강씨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그리

고 인혁이 허뚝 소주를 한입에 털어 넣었다.

인혁은 다음날부터 분주하게 뛰기 시작했다. 기존의 노점상 연합회 같은곳을 알아보고 직접 찾아다니며 대책을 강구하러 갔을때였다. 그러나 인혁은 곧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노점상 연합회나 그런것이 많지도 않았지만 대개는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혁은 다음부터는 직접 노점상들을 만나보려 다녔다. 그런데 노점상들의 태도는 인혁을 더욱 절망케 하였다. 인혁이 일일이 노점상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은 손을 뻐해 저었다. 아예 그런일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돈을 벌건지도 않고 즐리도 만무하다는 것이었다.

인혁은 그들을 이해할수 없었다. 폭력배 착취에 길들여져 있는 그들이 답답했다. 연수와 강씨도 인혁을 말리고 나섰다. 그런 방법으로 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강씨에게 들어서 알았지만 노점상들은 폭력배들의 보복을 두려워 하고 있었다. 폭력배들은 드러나지 않은 조직원을 통해서 노점상들을 감시한다는 것이었다. 수사요원을 사정하며 그런 종류의 수사를 하는척하며 걸려든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보복을 한일도 있었다고 한다.

인혁은 어쩌면 강씨의 판단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인혁은 포기하지 않고 노점상들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노점상들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고 인혁은 맥이 풀려버리고 말았다. 요새 같은 정의사회에 어떻게 그런일이

있을수 있으나 반문하는 그들의 아무런 얼굴을 훑어보며 인혁은 차라리 웃음이 나왔다. 인혁은 그들에서 절망조차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삶의 현장을 발견하곤 부끄러움을 느껴어유도 있었다.

그러나 인혁은 강씨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형님 / 산다는게 뭐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가두 살아야 해요?』

인혁은 고개를 저고 눈을 흘리며 술을 마셨다. 강씨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침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때, 그놈들이 나타났다. 놈들은 술취한 인혁같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돈을 요구했다. 인혁은 술이 확 깨는 순간에 인혁은 눈이 핑핑이 서고 있음을 느꼈다. 인혁은 뭔가 휘두를 것을 찾고 있었다.

저놈들에게 굴복할수 없다는

생각했었다.

『탁! 칼이 도마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인혁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강씨를 보았다. 강씨의 눈빛을 보았다. 인혁은 핏발선 강씨의 눈빛을 보고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부터 못내.』

강씨는 놈들을 똑바로 쏘아본채 나직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을 뿐이었다. 도마에 찍은 식칼을 권 오른쪽 팔뚝 위에서 문신으로 새긴 용이 힘을줄을 따라 날아 오를듯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놈들은 의외라는 듯이 당황한 눈

인혁은 다소 열떨떨한 기분이었다. 강씨는 그말을 남기고 식기를 챙기기 시작했다. 돌고르미 강씨를 쳐다보는 인혁에게 오늘은 그만 들어가 줘야겠다고 했다.

『칼이 무더져서 갈아야겠는걸.』

강씨는 그렇게 한마디 던졌었다.

IV

인혁은 병정에 들어서면서 눈으로 방정석을 대충 훑어 보았다. 듬성듬성 앉은 방정석들 중에서 연수가 들어보며 손을 들어 올렸다. 인혁은 뒷머리 연수에게 가서 앉았다. 연수는 약간 굳은 표정이었다.

『어떻게 됐어요?』

『바람까지요.』

인혁은 강씨가 두사내를 죽이고 지수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인혁이 알아본 바로는 그날 강씨가 들어가는 길목에 놈들이 지키고 있다가 덤벼들었는데 오히려 강씨에게 당했다는 것이었다.

인혁은 그후로 노점상들을 찾아

이런 가을농활은 신년여건과 관광대의 연대농활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특히 전교조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매스컴등을 통한 농민들의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어느정도 극복해냈다는 점에서 큰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농민이 추수하면서 느끼는 벼한포기, 쌀한톨에 대한 애정은 각별한 것이었으며 농활대원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농민과의 상호신뢰를 쌓는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하계농활에 비해 대원들의 조직생활현이 흐트러진 점이 많았으며, 감당해가야 할 일일비해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했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해내고 일회적, 일시적 농활이 아니라 지속적 활동을 전개해야 할것이다.

(이형숙기자)